



제1장 광주시의 역사

제1절 연혁

제2절 선사·삼한시대

제3절 삼국·고려시대

제4절 조선시대

제5절 일제강점기

제6절 8·15해방과 6·25전쟁

제7절 현대

제1장 광주시의 역사

제1절 연혁

고대국가 성립 이전부터 삼국시대 당시 한강변을 둘러싼 고구려·백제·신라의 쟁패 과정, 전근대 시기 ‘광주지역’의 위상과 역할은 물론, 서울시에 편입되거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을 한 가운데에서 받는 현대시기까지의 전 과정을 누적적·종합적·유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역사 전체상을 중심에 두고 광주의 역사를 지엽적으로 보는 방법이 아니라 광주지역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해당시기 구분, 행정구역 개편, 주요 사건 및 사고 등을 서술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1. 광주지역의 명칭 변화

1) 고지명 및 고대국가 명칭

고대국가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인 고조선시대부터 삼한시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지역을 가리켰던 포괄적인 명칭으로는 회안국_{淮安國}, 백제국_{伯濟國}, 하남위례성_{河南慰禮城}, 마한_{馬韓} 등을 꼽을 수 있다. 회안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 준왕이 위만조선에 밀려 남으로 내려와 소국을 세우고 한왕_{韓王}이라 하였다고 하는데, 문헌적인 근거나 지리고증이 확실하지는 않다. 광주지역은 철기시대를 맞이하여 마한 등 삼한사회로 새로 개편되면서 마한 50여개 국 중의 하나로서 백제국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¹⁾ 광주지역이 본격적인 국가통치하에 놓인 것

1) 다른 설로 백제국은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부족국가로 성립한 삼한 소국의 하나인데 ‘광주지역’에 있었던 성읍국가라는 주장도 있다.

은 삼국 중 하나인 백제가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하면서부터이다. 백제의 도읍지는 한국고대사의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데, 당시 백제 수도인 위례성의 위치가 한강유역 어디였는가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현 경안동 일대를 비롯하여 하남 이성산성과 춘궁리, 서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학계 의견은 분분하다.²⁾

2) 신주新州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의하면, 553년(신라 진흥왕 14)에 백제가 점령하던 한강 하류지역을 신라가 빼앗고, 그곳에 신주를 설치했다고 한다. 광주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주로서 신라가 처음으로 설치한 것이 신주였다. 557년에는 북한산주로 개칭되었다.³⁾

3) 한산주漢山州

685년(신라 신문왕 5)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은 9주 5소경이었다. 9주 중 하나인 한산주는 광주지역을 포함한 현 경기도 전역과 충북·강원·황해도 일부 지역까지를 포괄하였으며, 가장 많은 군·현을 갖고 있었다. 한산주의 명칭은 637년(신라 선덕여왕 6) 한산(서울), 우두(춘천)를 주치로 하는 한산주와 우두주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⁴⁾

4) 남한산성南漢山城, 남한산주南漢山州

여기에서의 남한산성은 현재 존재하는 성城으로서의 남한산성 자체가 아니라 '광주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옛 명칭을 가리킨다. 이는 “처음 백제시조 온조왕이 …… 13년에 이르러 한산漢山 아래에 성책을 세워 위례성의 민호를 옮기고 마침내 궁궐을 지어 거처하게 하였다. 이듬해 도읍을 옮기고 남한산성이라 하였다”라는 기록⁵⁾과 “광주는 본래 백제 남한산성이다. 시조 온조왕 13년(BC 6) 위례성에서 도읍을 옮기었고”라는 기록⁶⁾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남한산

2) 고고학 발굴과 연구성과 등을 종합하면 풍납토성이라는 설이 다수설이나 정설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3) 전덕재, 『한산주의 설치와 변화』,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68쪽.

4) 전덕재, 『한산주의 설치와 변화』,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70-71쪽.

5)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광주목.

6) 『동국여지승람』 광주조.

주는 670년(신라 문무왕 10)에 한산주를 개칭하여 등장한다.

5) 한주漢州

통일신라가 기존 9주 5소경 제도를 유지하면서 756년(신라 경덕왕 15) 9주의 이름을 고치는 정책에 따라 한주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즉 광주지역이 속했던 한산주는 한주로 바뀌었다.

6) 광주廣州

역사적으로 광주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려 초기였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기존의 한주라는 지명을 현재의 명칭인 광주로 고쳤다.

7) 광주목廣州牧, 광주부廣州府, 광주유수부廣州留守府

983년(고려 성종 2) 전국적으로 주부군현의 이름을 개정하고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할 때 광주목이 설치되었다. 전국에 설치된 12목 중의 하나로 설정될 만큼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조선시대인 1577년(선조 10)에 광주부로 승격되었다.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군사적·행정적 요충지에 대한 산성 축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1683년(숙종 9) 광주부를 광주유수부로 승격시켰다.

8) 동광주東廣州, 서광주西廣州

동광주와 서광주는 행정구역 명칭은 아니다. 최근 100년 동안의 광주지역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광주 내부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명칭 아닌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부터 이런 구분이 생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전후로 추정된다. 대체로 광주지역의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여 동광주는 현 광주시를, 서광주는 서울에 편입된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과 성남시·하남시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보인다.

9) 광주군廣州郡, 광주시廣州市

광주유수부 설치 이후 '광주지역'은 몇 차례 읍호승강을 겪은 후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 당시 전국이 23개 부로 개편될 때, 개성·강화·수원과 함께 광주유수부가 폐지되고, 한성부 광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한 차례 변동이 있었으나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100년 동안 광주군이란 명칭이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인 현대사 시기에 도시화, 산업화의 파급이 작용하면서 서울로 속속 많은 구역이 이관되거나 독립된 시로 분화되면서 행정구역이 줄어 들었지만 빠른 도시화 과정을 거쳐, 2001년 3월에 시로 승격되었다.

2. 문헌으로 본 주요 행정구역 변천

1) 사료를 통해 본 시기별 변화상

〈사료 1〉『삼국사기』백제본기 온조 13년

내가 어제 나가 한강의 남쪽을 순시하였는데, 땅이 매우 기름지다. 마땅히 거기에 도읍하여 영구적인 평안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료 2〉『고려사』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광주목

廣州牧初百濟始祖溫祚王以漢成帝鴻嘉三年建國都于慰禮城至十三年就漢山下立柵移慰禮城民戶遂建宮闕居之明年遷都隄南漢山城至近肖古王二十五年移都南平壤城。及新羅太宗王遣金庾信與唐將蘇定方夾攻百濟滅之。後唐師還文武王漸收其地改爲漢山州又改爲南漢山州景德王十五年改名漢州。太祖二十三年更今名成宗二年初置十二牧州其一也。十四年置十二州節度使號奉國軍屬關內道。顯宗三年廢爲安撫使九年定八牧仍爲牧官別號淮安。〔成廟所定。〕有日長城〔新羅文武王所築卽畫長城。〕屬郡四縣三

위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면, 371년(백제 근초고왕 26) 백제 도읍을 남평양으로 천도, 475년(고구려 장수왕 63) 고구려가 남하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이남 죽령부터 남양만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다. 이후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연합하여 한강 일대를 수복한 뒤 신라의 영토가 될 때까지 약 70년간은 고구려에 속했다. 551년(백제 성왕 29) 백제가 신라와 연합,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유역 6개 군을 수복하였다. 그리고 553년(신라 진흥왕 14)에는 신라가 백제에 속했던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고 신주를 설치하

였으며, 무관을 군주軍主로 임명하였다. 이후 557년에 북한산주로 개칭되었다가 664년(신라 문무왕 4)에 한산주라는 명칭을 회복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인 670년에는 남한산주南漢山州로 명칭이 바뀌었고, 672년 한산주에 주장산성畫長山城(현 남한산성)이 축성되었다. 756년(신라 경덕왕 15) 9주의 이름을 고치는 정책에 따라 한주漢州로 개칭되었고, 두 개의 직속현(황무현: 이천, 거서현: 용인)을 두었으며, 소경 1개, 군 28개, 현 47개를 관할하였다.

고려시대 변화상으로는 940년(태조 23) 한주라는 지명을 현재의 명칭인 광주廣州로 개칭하였다. 983년(성종 2) 전국적으로 주부군현의 이름을 개정하고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광주목이 설치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전 시기를 거쳐 목·도호부·군 등으로 읍격의 변화는 있었지만, 광주라는 명칭은 계속 유지됐다. 995년(성종 14)에는 절도사를 두고 광주는 봉국군奉國軍이라 하여 관내도에 귀속하고 회안이라는 별호를 붙였으며, 1012년(현종 3)에는 절도사를 폐하고 안무사를 파견하였다. ‘한편 경기京畿’로 확정된 1018년 이후 1069년(문종 23)에는 왕경 주위 12현이 크게 확대, 양광도·교주도·서해도의 39개 현이 경기로 이속되었다.

조선시대 주목할 만한 지방제도의 개편은 1413년(태종 13) ‘8도제의 편제와 군읍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현재의 광역단위인 경기·충청·강원·황해·전라·경상·평안·함경의 8도 체제가 확정된 것이다. 1467년(세조 13) 왕실용 자기의 제작을 감독하는 기관인 사옹방을 사옹원으로 개칭하면서 광주분원이 설치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광주목이 혁파되고, 1506년(중종 1) 광주목이 복설되었다. 1577년(선조 10) 광주府廣州府로 승격되었고, 1592년에는 수어부사를 겸무하였다. 1626년(인조 4) 남한산성이 수축·준공되고 수어청이 설치되었으며, 1636년 병자호란 발발로 인조가 신하들과 남한산성으로 몽진하여 항전한 바 있다. 1683년(숙종 9) 광주부를 광주유수부로 승격, 행정과 군사를 함께 담당하도록 조치하였으나 1690년(숙종 16) 유수부가 부로 격하되었다. 1779년(정조 3) 남한산성이 개축되고, 1795년에는 수어청을 폐지하고 광주부를 유수부로 다시 승격, 남한수어사를 겸임시켜 행정과 군사의 이원적 지휘체제를 일원화시켰다.

한말에서 일제강점기 기간에도 적지 않은 행정구역 변화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전국이 23개 부로 개편될 때, 개성·강화·수원과 함께 광주유수부가 폐지되고, 한성부 광주군으로 개칭되었다. 1년만인 1896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광주유수부로 복귀되었으나, 다시 1906년 지방구역 정리로 강화부·개성부와 함께 군으로 격하되었으며, 1907년에는 중부면 산성리에 군청이 설치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한반도 전체 역사 속에서 최대 규모로 단행된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의곡儀谷·왕륜旺倫면을 수원군으로, 초부草阜면을 양주군으로 보내고, 양근군楊根郡의 남종면南終面이 광주군에 편입되었다. 또 세촌면을 없애고 중부면으로 새로 개편하였다. 1917년 중부면 산성리에 있던 군청을 경안리(현 경안동)로 이전하였고, 1937년 경안면을 광주면으로 개칭하였다.

2) 행정구역 개편 조치와 내용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광주지역의 구체적인 명칭이 드러나거나 행정구역이 크게 바뀌었던 제도 변화를 살펴보자. 조선 초기의 지지『세종실록』지리지(1454)에 의하면, 광주목의 사방 경계를 당시의 고을 읍치(현 하남시 춘궁동)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나 정확한 경계를 알기가 어렵고, 『동국여지승람』(1481)은 『세종실록』지리지보다 세밀한 편이지만, 여전히 광주목의 경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하기는 어렵다. 광주를 포함하여 옛 군현 단위의 세부 명칭이 문헌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의 『여지도서』(1759년경)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안면, 오폐면, 도척면, 실촌면, 초월면, 퇴촌면 등 현재의 광주지역을 포함하여 23면이 보인다. 또한 이보다 약 30년 늦은 『호구총수』(1789년경)에도 23면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지도서』의 일용면과 송동면이 빠지고 성내 남동과 북동이 포함되어 있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광주목 면별 동리와 호구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조선 후기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광주지역 면리 현황

면명	여지도서(1759년경)	호구총수(1789년경)
	리/동명	리/동명
경안면(慶安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역촌(驛村), 삼리(三里)	상일리, 하일리, 전지리, 직동리, 밀목리, 삼리, 모전리, 쌍령리, 중리, 역동, 주막리
오폐면(五浦面)	상동(上洞), 중동(中洞), 수동(水東), 군수둔리(軍需屯里)	상일리, 상이리, 상삼리, 태척리, 중동, 수동리, 수둔리, 관둔리
도척면(都尺面)	일동내(一洞內), 이동내(二洞內), 삼동내(三洞內), 사동내(四洞內)	일리, 이리, 삼리, 사리, 오리
실촌면(實村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일리, 이리, 삼리
초월면(草月面)	상동내(上洞內), 중동(中洞), 하동(下洞)	상동, 중동, 사동
퇴촌면(退村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영동리(嶺東里)	일리, 이리, 수동리, 영동리, 우산동
초부면(草阜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일리, 이리
동부면(東部面)	사창리(司倉里), 산곡리(山谷里), 덕봉리(德豐里), 황산리(荒山里), 둔지리(屯地里), 팔당리(八堂里)	사창리, 산곡리, 덕봉리, 황산리, 둔지동, 팔당리
서부면(西部面)	항동(項洞), 춘장리(春長里), 초덕리(草德里), 감천리(甘泉里), 동음암리(冬音巖里)	항동, 감천동, 동음암리, 초덕리, 춘장리, 향교동
구천면(龜川面)	일동내(一洞內), 고다지동(古多只洞), 명일원리(明日院里), 암사동(巖寺洞), 곡교리(曲橋里), 기리동(其里洞), 둔촌리(遁村里), 성내동리(城內洞里)	곡교동, 성내동, 기리동, 둔촌동, 일동내, 고다지동, 암사동, 명일원동

면명	여지도서(1759년경)	호구총수(1789년경)
	리/동명	리/동명
중대면(中臺面)	거여미동(巨余味洞), 오금리(梧琴里), 장지리(長旨里), 문정동(文井洞), 가락동(可樂洞), 송파동(松坡洞), 삼전도리(三田渡里), 이동내(二洞內)	거여미동, 문정동, 송파동, 가락동, 삼전도, 장지리, 오금리, 중대, 이동
세촌면(細村面)	단대리(丹臺里), 대원동리(大院洞里), 탄동리(炭洞里), 복정리(復井里)	복정동, 탄동, 대원동, 단대동
돌마면(突馬面)	상동리(上洞里), 하동리(下洞里)	상동, 하동
낙생면(樂生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오리(五里)	일리, 이리, 삼리, 사리, 오리
대왕면(大旺面)	노상리(路上里), 송현리(松峴里), 사촌리(沙村里), 둔촌리(遁村里), 노하리(路下里), 고산리(高山里), 신곡리(新谷里), 세천리(細川里), 지곡리(池谷里), 율현리(栗峴里), 자양동리(紫陽洞里), 수동리(水東里), 궁촌수서동리(宮村水西洞里), 일원동리(逸院洞里), 둔전리(屯田里), 등자리(登自里), 오야곡리(梧野谷里)	고산동, 율현동, 노상동, 수서리, 대둔리, 송현리, 은곡리, 노하동, 신곡, 등자리, 하산동, 둔퇴리, 일원, 자양동, 지곡동, 세천동, 오야곡, 사촌리
언주면(彦州面)	신원리(新院里), 역촌리(驛村里), 양재리(良才里), 방하교(方下橋), 무동도리(舞童島里), 포전리(浦前里), 청담리(淸潭里), 부노도리(扶老島里), 저자도리(楮子島里), 반곡리(盤谷里), 압구정리(押鷗亭里), 논고개리(論古介里)	신원, 포전리, 반곡동, 양재리, 방하교, 역촌, 논고개, 압구정, 청담, 저자도, 무동도, 부노도
의곡면(義谷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손동, 갈산리, 포우리, 청계동, 학현, 어일리
왕륜면(旺倫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상이리(上二里), 삼리(三里)	일리, 이리, 삼리
일용면(一用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
월곡면(月谷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수서당수리(水西棠樹里), 오룡동리(五龍洞里), 사사리(沙士里), 상초평리(上草坪里), 하초평리(下草坪里)	일리, 이리, 대대동, 입북동, 오룡동, 사사리, 상초평, 하초평, 상수리
북방면(北方面)	속달리(速達里), 도대리(道岱里), 대야미리(大夜味里), 이리(二里), 도마교리(刀馬橋里), 삼리(三里), 팔곡리(八谷里)	속달리, 둔대리, 대야미리, 도마교, 유곡리, 팔곡리, 건건리
송동면(松洞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
성곶면(聲串面)	이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오리(五里)	일리, 이리, 삼리, 사리, 오리
성내각리(城內各里)	남동리(南洞里), 북동리(北洞里)	성내남동내, 성내북동내

한편, 18세기말에 간행되고 19세기 중엽에 중간된 『중정남한지』(1846)에는, 광주 전역을 지역별 위치에 따라 상도·중도·하도의 3구역으로 나누고, 상도 7면, 중도 9면, 하도 7면 등 도합 23면을 분속 설치하고 있다.

1906년에는 칙령 제49호로 발포된 「지방구역정리의 건」에 의하여 조선 초기 이래 실시해 오던 두입지제斗入地制를 폐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광주의 두입지였던 초부면은 양주군으로, 월곡·북방·성곶 등 3면은 안산군에 각각 이속되었다. 이로써 광주군은 17면만 포용하게 된 셈이나, 성내각리와 동부 경안면의 일부를 합쳐 군내면으로 편성 결국 18면으로 구성되었다.

1914년에는 일제가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획일적이고 통합적으로 지방행정구획을 개편하였다. 이 때문에 이전 시기까지 각 지역에서 통용됐던 고유한 지역문화의 전통을 담은 자연마을의 명칭은 거의 사라졌다. 이때의 조치로 광주군은 18면 304리에서 16면 183리로 개편되었다. 다음의 표는 그 중 현 광주지역의 개편 현황이다.

1914년 일제강점기 당시 행정구역 개편 중 현 광주지역 현황

읍·면	개편 내용	현 광주시 구역 /이후 변화 내용
중부면	동·서·중·남·북부 → 산성리 / 검복리·남성리 → 검복리 / 불당리 / 오아동·둔전리 → 오전리 / 광지원리 / 엄현리·미라동 → 엄미리 (당시 상산곡, 상대원, 창곡, 북정, 단대, 탄, 수진 등 7개 리도 중부면 소속이었으나 현 성남시임)	산성리,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엄미리
퇴촌면	상우산동·하우산동 → 우산리 / 상관음동·중관음동·광복동 일부 → 관음리 / 광복동 일부, 동대동 → 광동리 / 도지동·수동리·탑선동 → 도수리 / 정자동, 지위동, 초월면 정자동 → 정지리 / 오리 / 금사리 / 족자동·과학동·삼정동 → 삼성리 / 도마리 / 영동리 / 석호동·석림동 → 이석리 / 초월면 무수동 → 무수리 / 초월면 원당동 → 원당리	전체 13개 리에서 10개 리로 개편됨
경안면	직리 / 태전리 / 장내동·전지리·후지리·사동 → 장지리 / 역리 / 주막리 / 탄동 일부와 벌원리 → 탄벌리 / 목감동·조현리·탄동일부 → 목현리 / 회덕리·군내면 이조현리 → 회덕리 / 수하리·송정리 → 송정리 / 중리·대동 → 중대리 / 삼리 / 쌍령리	현재의 경안동·송정동·광남동에 해당함
초월면	상번천리·내곡리 → 상번천리 / 하번천리 / 서하동 일부 → 서하리 / 무갑리·서하동 일부 → 무갑리 / 지곡리·설월리 → 지월리 / 상조평·하조평 → 도평리 / 신단리·두월리·탄동 → 신월리 / 선장동·하동막동 → 선동리 / 학현리·상동막동·중동막동 → 학동리 / 늑현리 / 신대리 / 산이리 / 소쌍령리·동선리 → 쌍동리 / 대쌍령리 / 용두리·수입리 → 용수리	전체 15개 리에서 12개 리로 개편

읍·면	개편 내용	현 광주시 구역 /이후 변화 내용
실촌면	곤지암·대석리·묵방리 → 곤지암리 / 구수동·구양리·복상동 → 수양리 / 신촌리 / 상조현동·하조현동·설월리 → 봉현리 / 부곡동 일부, 오향동 → 부향리 / 오향동, 부곡동 일부 → 오향리 / 상·중·하열미동 → 열미리 / 연곡리 / 만곡·상탑선·하탑선동 → 만선리 / 내선동·외선동 → 이선리 / 장좌동·동심리 → 장심리 / 건업리 / 유여리·사동 → 유사리 / 지음리·야포동·국정포동 → 삼합리	전체 14개 리가 18개 리로 개편
도척면	궁평리 / 도현리·웅동 → 도웅리 / 진촌리·우치동 → 진우리 / 상림리 / 노곡리 / 추곡리와 양지군 주북면 정수리 일부 → 추곡리 / 유여동·운정동 → 유정리 / 방동리·내도척리 → 방도리 / 삼리	전체 9개 리에서 8개 리로 개편
오폐면	목리 / 신촌리·태현리 → 신현리 / 능곡리·창평리·차곡리 → 능평리 / 진해촌·휴곡리·문현동 → 문형리 / 추곡리 일부, 자작리 → 추자리 / 고잠리·허산리·추곡리 일부 → 고산리 / 매곡리·독산리·외곡리 → 매산리 / 양촌리·벌리·둔리 → 양벌리	전체 8개 리에서 7개 리로 개편
남종면	양평군 남종면 대청수리, 소청수리 → 수청리/ 검단리·사천리 → 검천리/ 제청리, 귀여리 일부 → 귀여리/ 우천리·귀여리·분원리 각 일부 → 우천리/ 분원리 일부 → 분원리	전체 5개 리가 7개 리로 개편. 우천리는 팔당댐 담수로 소멸됨

출전 :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 『한국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 『지방행정구역요람』(경기도, 1997).

3. 현대의 행정구역 변화

1945년 이후 2011년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광주지역이 어떻게 변화했고, 시기별 특징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해방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도 일제강점기 당시의 행정구역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1960~1970년대 들어 도시화·산업화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는 1963년 현 서울시 송파구 전역과 강남구·서초구의 일부인 구천면·언주면·중대면 전체와 대왕면 5개리의 서울시 편입, 1973년 성남시 분리·독립과 1989년 하남시 분리·독립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광주시도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비하면서 시로 승격되는 변화를 맞이했다.

해방 이후 광주지역의 주요 행정구역 개편

날짜	개편 내용	근거	비고
1963. 1. 1	구천면·언주면·중대면 전체와 대왕면 5개 리(세곡·율현·일원·수서·자곡) 서울시에 편입 ⁷⁾	법률 제1172호	16면 → 13면
1971. 9. 13	경기도 성남출장소 승격. 광주군 대왕면 10개리, 낙생면 11개리, 돌마면 11개리, 중대면 6개리 관할	경기도 조례 제470호	
1973. 7. 1	광주군의 낙생·돌마·대왕면 전체와 중부면 6개 리(단대, 탄, 수진, 상대원, 복정, 창곡), 신설된 성남시에 편입	법률 제2597호	13면 → 10면
1973.	도척면 삼리 → 실촌면 삼리로 편입		지명 257쪽
1974.	초월면 신대리 → 실촌면 신대리로 편입		지명 251쪽
1979. 5. 1	광주면 → 광주읍 승격	대통령령 제9409호	10면 → 1읍 9면
1980. 12. 1	동부면 → 동부읍 승격	대통령령 제10050호	1읍 9면 → 2읍 8면
1989. 1. 1	하남시 신설, 광주군 동부읍·서부면 전체와 중부면 상산곡리 하남시에 편입	법률 제4050호	2읍 8면 → 1읍 7면
2001. 3. 21	광주읍 → 경안동·송정동·광남동으로 분동 오포면 → 오포읍 승격 / 시 승격	법률 제6280호	1읍 7면 → 1읍 6면 3동
2004. 6. 21	초월면 → 초월읍 승격 / 실촌면 → 실촌읍 승격	광주시 조례 제106호	1읍 6면 3동 → 3읍 4면 3동
2011. 6. 21	실촌읍 → 곤지암읍 명칭 변경		3읍 4면 3동

2011년 10월 현재 광주시의 행정동과 법정리·동 현황

읍면동	법정리·동
오포읍(7)	고산, 신현, 능평, 문현, 추자, 매산, 양벌
초월읍(12)	대쌍령, 쌍동, 산이, 늑현, 학동, 선동, 용수, 신월, 지월, 무갑, 서하, 도평
곤지암읍(18)	곤지암, 수양, 신촌, 봉현, 부항, 이선, 만선, 유사, 삼합, 연곡, 상오향, 하오향, 상열미, 하열미, 장심, 신대, 삼, 건업
도척면(8)	노곡, 유정, 방도, 추곡, 상림, 도웅, 궁평, 진우
퇴촌면(10)	광동, 관음, 우산, 영동, 도수, 오, 도마, 무수, 원당, 정지
남종면(7)	분원, 귀여, 검천, 수청, 금사, 이석, 삼성
중부면(8)	산성, 엄미, 광지원, 오전, 불당, 검복, 하변천, 상변천
경안동(3)	경안동, 쌍령동, 역동
송정동(5)	송정동, 회덕동, 탄벌동, 목현동, 경안동
광남동(6)	삼동, 중대동, 직동, 태전동, 장지동, 목동

비고 : 2011년 6월 21일부터 실촌읍이 곤지암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7) 「광주군규칙」 제36호.

제2절 선사 · 삼한시대

1. 선사시대

구석기시대는 약 1만 년 전 이전에 살았던 인류의 문화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구석기 유적을 보면, 장지동 산1번지에서 주먹도끼 · 굽개 등이 발견되었고, 곤지암읍 연곡리에서 몸돌 · 찌개 · 굽개 · 격지 등이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도척면 상림리 · 궁평리, 남종면 분원리, 퇴촌면 도마리, 초월읍 지월리 등지에서 여러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구석기인이 골고루 퍼져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된 생활방식인 채집이나 사냥하기에 적당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가 끝나고 기원전 8,000년을 전후로 시작되었다. 지형학적으로 홍적세가 끝나고 충적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빙하기와 달리 자연환경 변화의 굴곡이 심하였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도구의 발달이 일어났다. 구석기시대 이래 사용하던 타제석기뿐만 아니라 마제석기와 토기도 사용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획득경제단계에서 생산경제단계로 이행하였다. 광주지역의 신석기 유적을 보면, 도척면 궁평리 궁뜰 유적에서 구석기 유물과 즐문토기 조각이 발견되었고, 하남시 미사동(옛 광주지역) 유적에서도 즐문토기가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많은 신석기인이 거주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 광주지역에서는 경안천과 곤지암천 주변이 신석기인들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청동기시대는 금속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3~4세기까지에 해당하며, 새로운 도구인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급격한 사회 변혁이 일어났다. 토기는 민무늬 토기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마연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광주지역 청동기 유적을 보면, 장지동 산64 일대에서 고인돌과 무문토기 등이 발견되었고, 태전동에서 무문토기 조각이, 남종면 삼성리와 도척면 궁평리에서 고인돌이, 실촌읍(현 곤지암읍) 신대리, 오폐읍 고산리 · 능평리, 초월읍 산이리 · 쌍동리, 남종면 검천리 등지에서 무문토기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광주지역에서 많은 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일찍부터 금속기 문화가 이루어져 국가가 형성되고 족장과 같은 권력자가 등장하여 정치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족장은 초기 형태의 국가, 즉 부족국가의 수장으로서 성읍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백성을 지배했을 것이다. 나지막한 구릉 위에 토성을 쌓아 성 안에서는 족장층과 같은 지배층이 살고, 성 밖에는 농경에 종사하는 농민이 거주하는 국가형태를 이루었을 것이다.

2. 삼한시대

1) 철기문화의 전래와 유적 분포

한국고고학계는 종래 서력기원을 기준으로 이전 300년 동안을 초기철기시대라 부르고, 이후 300년 동안을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라고 불렀다. 초기철기시대란 이 무렵부터 철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무기·장신구·의례도구 등에서는 여전히 청동기가 많이 제작·사용되고 청동기 제조기술도 오히려 크게 발전한 시기이다.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하는 청동기로는 세형동검과 줄무늬거울 등이 있다. 원삼국시대는 고구려·백제·신라가 본격적으로 정립하기 전의 단계를 가리키는데, 역사학계에서는 흔히 삼한시대라고 불러왔다.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합쳐 단순히 '철기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까지 철기시대의 문화유적은 주로 압록강·대동강·낙동강·섬진강유역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한강유역에서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시기에 고조선·낙랑군·한韓 등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이 무렵 한반도 북방의 고조선 내지 낙랑군과 남방의 삼한 세력 사이에 상호 견제로 인한 정치적 긴장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중간지대인 한강유역에서는 일종의 힘의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강 하류지역의 대표적인 철기시대 유적으로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풍납동·석촌동, 하남시 미사리, 양평군 문호리·대성리, 가평군 마장리·이곡리·달전리 등지에서 발견된 집터·가마터(窯址)·움무덤(土壙墓)·점석봉토분·돌무지무덤(積石塚)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집터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조사되었는데, 토기를 비롯한 출토유물을 통해 대체로 초기철기시대 말엽 혹은 원삼국시대의 유적이며, 무덤도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광주지역은 유적·유물 조사가 미흡하게 진행되어 분명한 철기시대 유적이 보고된 바는 없다. 다만 1986년에 도척면 궁평리에서 돌무지무덤 2기를 조사하였는데,⁸⁾ 1호는 강자갈을 길이 11.4m, 높이 2.3m의 규모로 쌓은 것이고, 2호는 동서 6m, 남북 7.9m의 장방형으로 적석층 아래에 잘 다져진 고운 모래층이 있었다고 한다. 발굴자에 따르면, 1호 무덤에 쌓인 돌의 전체 무게는 약 101.5톤에 달하였으며, 납작한 자갈돌로 이루어진 유구 내에서 대략 16세쯤으로 추산되는 남자의 허벅지 뼈 일부분과 회색계통의 백제토기 조각이 수습되었다. 2호 무덤

8) 손보기·장호수·최삼용, 「광주 궁평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6.

은 약 165cm 길이의 유구 안팎에서 붉은 흙과 백제 토기조각이 다수 확인되었다. 토기는 무늬 없는 겉면에 띠를 한 줄 두른 것, 격자무늬를 찍은 것, 격자무늬에 띠를 두른 것 등으로서 앞은 바리[鉢] 모양 토기였다. 발굴자는 이들 유적이 성립한 연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지적처럼 이들 돌무지가 춘천 중도, 양평 문호리, 제천 도화리·양평리 등지에서 확인된 무덤들과 같은 종류의 유적이라면 대체로 2~3세기경에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철기 제작·사용을 국가 형성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강 하류지역의 철기유적은 광주지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2) 회안국에 관한 전설

광주지역에 전해오는 옛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옛날 회안국⁹⁾淮安國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며, 현재 경안¹⁰⁾京安이 바로 회안국의 왕이 살던 도읍이라고 한다. 마침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는 광주의 별칭으로 회안이라는 이름이 실려 있다. 하지만 『삼국지』 한전에 실린 마한 54개 국¹¹⁾ 중에는 회안국과 비슷한 이름이 없다. 이에 회안을 한韓의 연장음¹²⁾延長音=반절음¹³⁾反切音으로 보고, 고조선古朝鮮=한씨조선韓氏朝鮮의 준왕이 남쪽으로 쫓겨 내려와 정착한 곳을 한韓=회안이라 했으며, 그곳에 세운 나라가 바로 회안국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고조선의 준왕이 바로 광주지역에 전하는 옛이야기 속의 회안국왕이고, 지금의 경안¹⁴⁾京安이라는 지명도 그가 살던 도읍 이름 ‘회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¹⁵⁾

회안을 한韓과 연결짓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해석이지만, 준왕이 정착한 마한국의 본거지가 익산이라는 전설¹⁶⁾과 정면 충돌한다. 광주와 익산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연관 짓기도 곤란하다. 그런데 광주지역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고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익산지역은 초기 청동기문화의 중심지로 꼽힐¹⁷⁾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9) 원양국(爰襄國), 모수국(牟水國), 상외국(桑外國), 소석색국(小石索國), 대석색국(大石索國),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 신분침국(臣濱沾國), 백제국(伯濟國),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일화국(日華國), 고탄자국(古誕者國), 고리국(古離國), 노람국(怒藍國), 월지국(月支國),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소위건국(素謂乾國), 고원국(古爰國), 막로국(莫盧國), 비리국(卑離國), 고비리국(古卑離國), 신흠국(臣纘國), 지침국(支侵國), 구로국(狗盧國), 비미국(卑彌國),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고평국(古蒲國), 치리국(致利國), 열로국(冉路國), 아림국(兒林國), 사로국(駟盧國), 내비리국(內卑離國), 감해국(感奚國), 만로국(萬盧國), 벽비리국(辟卑離國), 구사오단국(白斯烏旦國), 일리국(一離國), 불미국(不彌國), 지반국(支半國), 구소국(狗素國), 첩로국(捷盧國),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신소도국(臣蘇塗國), 막로국(莫盧國), 고랍국(古臘國), 임소반국(臨素半國), 신운신국(臣雲新國),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 일리국(一離國), 구해국(狗奚國), 불운국(不雲國), 불사분야국(不斯濱邪國), 원지국(爰池國), 건마국(乾馬國), 초리국(楚離國).

10)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5, 252~253쪽.

11) 『동국여지승람』 권33, 익산군 건치연혁.

12) 김정배,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259~270쪽.

에 의하면, 회안이라는 이름은 991년(고려 성종 10)에 전국 주군의 별호別號를 정할 때 광주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¹³⁾ ‘회안’이 정말 ‘한’의 연장음이라면 무려 1,000년 가까운 세월을 백제-고구려-신라의 땅으로 지낸 뒤에도 옛 나라 이름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결국 고려시대에 행정구역 명칭으로 부활한 셈이다. 그러나 기록에서는 그럴 정도로 강렬한 회안국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전해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록 속의 지명 ‘회안’을 ‘회안국’으로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증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절 삼국 · 고려시대

1. 삼국시대

1) 백제

백제의 건국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가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한수의 남쪽 곧 하남지역에서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니 그때가 바로 홍가鴻嘉 3년, 곧 기원전 18년이었다고 한다.¹⁴⁾ 그러나 백제가 정말 기원전 18년에 건국하였다면 한강유역에서 기원전 1세기경에 해당하는 백제 유적이 발견되어야 자연스럽지만 아직 이에 해당하는 유적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풍납토성은 늦어도 1세기경에 쌓은 백제 왕성으로 보기도 하지만,¹⁵⁾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3세기 무렵에 쌓았다는 해석¹⁶⁾에 부합하는 듯하다.

『삼국사기』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기록으로는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가 꼽힌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3세기 초 · 중엽의 한반도 상황이 간략히 묘사되어 있는데, 부여 · 고구려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 남부

13) 『세종실록』지리지 권148, 경기 광주목.

14)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즉위년.

15) 이형구, 『서울 풍납토성(백제왕성) 실측조사연구』,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7; 김태식,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김영사, 2001; 신회권,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한 하남위례성 고찰』, 『郷土서울』 62, 2002.

16) 권오영, 『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조사의 성과』, 『풍납토성의 발굴과 그 성과』, 한신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2001, 46쪽; 박순발,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문화사, 2001, 181쪽.

에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 등 삼한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마한은 대략 50여 개의 작은 나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였다. 마한을 구성한 대략 54개 국 중 8번째에 백제國伯濟國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백제百濟와 한자가 다르긴 하지만 소리와 모양이 비슷한 글자이기에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그래서 백제百濟는 백제伯濟를 뜻이 더 좋은 한자로 나중에 바꾼 것이라고 믿는 학자가 적지 않다. 아무튼 『삼국지』의 기사는 기원전 1세기경에 이미 백제가 북쪽으로 대동강 혹은 예성강, 남쪽으로 금강 혹은 안성천까지 소유하였다고 적혀 있는 『삼국사기』 기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지』가 충돌할 경우, 신뢰도가 높은 쪽은 아무래도 『삼국지』이다.

한편, 백제 시조인 온조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들이라는 건국설화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부여·고구려 방면에 살던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운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정한 대목은 백제가 고구려의 많은 문화적 영향 속에서 성장하였음을 시사한다.

백제가 현재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서 건국하였다면, 하남시와 광주시 일대는 당연히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근래 하남시에서 발굴 조사된 미사리의 주거지와 발 유구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남북 110m, 동서 50m 크기의 발 유구와 북쪽의 고상식高床式 가옥, 그리고 육각형 수혈식竪穴式 주거지가 대략 4~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백제문화층에서 확인된 것인데,¹⁷⁾ 이로써 지금의 하남시 일대가 백제 중앙세력의 경제적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백제는 371년(근초고왕 26)에 위례성에서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¹⁹⁾ 한강 북쪽의 북한산성이나 독섬 근방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한강 남쪽의 남한산 일대에서 찾은 것이 보통이다. 한산은 절을 세우고²⁰⁾ 한산성·한산북책과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했으며,²¹⁾ 여러 차례 왕이 가서 사냥했을²²⁾ 정도로 범위가 넓었다. 한산이 단지 하나의 산을 가리킨 경우도 있었고 그 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가리킨 경우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강 남쪽 하남위례성 부근의 산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한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의 기사에서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는 표현은 한산 자락에 새로운 성을 쌓고 옮겼다는 뜻이며, 크게 보아서 새로운 도성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²³⁾ 위례성이 지금의 풍납토성이라면, 371년의

17)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미사리』 3, 1994, 209~214쪽.

18) 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125~126쪽.

19)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

20)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침류왕 2년.

21)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아신왕 7년.

22)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기루왕 27년, 개루왕 4년; 『삼국사기』 권25, 비유왕 29년.

23) 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305~311쪽.

새 거처는 한산 자락의 산성인 몽촌토성일 개연성이 높다. 이후 백제의 도읍은 한성으로 불리었는데, 한성은 남성과 북성 2개의 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2) 고구려

475년(장수왕 63)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이끈 3만 군대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다. 이때 한성을 지키던 개로왕과 왕족 상당수가 몰살당해 백제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개로왕의 동생인 문주왕²⁴⁾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며 웅진, 즉 충남 공주지역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만, 백제 발전의 기반이 되어온 한강유역은 결국 고구려의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다. 한강유역을 장악한 고구려는 이후 한동안 백제와 신라를 압도하는데, 이 무렵 광주지역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다. 다만 고구려의 영역이 동쪽으로는 죽령, 서쪽으로는 남양만 일대까지 확장된 상태였으므로, 광주지역도 고구려에 들어갔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주는 본래 고구려의 한산군으로서, 신라가 차지한 뒤 경덕왕 때 한주로 고쳤는 바 지금의 광주이다”라고 한 『삼국사기』 지리지2 기사는 현 광주지역이 장수왕대에 이미 고구려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편입되었음을 시사한다.

백제는 한강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강을 이용하였던 반면, 고구려는 상대적으로 한강 이북지역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듯하다. 그것은 고구려가 한강 북쪽의 양주 일대에 북한산군北漢山郡을 설치하고, 그곳을 남평양南平壤이라고 불렀던²⁵⁾ 데서 알 수 있다. 즉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에서 파생된 이름인 ‘남평양’을 북한산군의 별명으로 삼은 것은 그만큼 고구려의 남진 정책 추진에 있어 북한산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신라

백제가 한강 하류지역의 옛 도읍지를 되찾았을 때, 신라는 고구려에게서 한강 상류지역의 10개 군을 빼앗았다.²⁶⁾ 2년 뒤인 553년(진흥왕 14) 가을에 신라는 백제와 맺은 동맹을 깨뜨리고

24) 이기동, 『중국사서에 보이는 백제왕 모도에 대하여』, 『역사학보』 62, 1974.

25) 『삼국사기』 권35, 지리지2 한주 한양군; 『삼국유사』 권2, 기이2 남부여 전백제.

2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2년; 『삼국사기』 권44, 열전 거칠부.

백제를 공격해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고 신주를 설치하였다.²⁷⁾ 진흥왕은 영토 확장과 한강 진출의 선봉에 서온 김무력金武力을 신주의 군주로 임명함으로써 한강 하류지역에 대한 수호의 지를 천명하였다. 진흥왕은 557년에 신주를 폐지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 이는 그 2년 전에 진흥왕이 직접 북한산을 순행한 것과 관련된 조치로, 북쪽의 고구려에 대한 방비를 염두에 둔 적극적 군사행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진흥왕은 568년에 다시 황초령·마운령 등지를 순행하면서 변경의 행정구역을 재정비하였다. 그 결과 한강유역에서는 북한산주가 폐지되고 지금의 경기도 이천지역에 남천주南川州가 설치되었다. 남천주는 35년 간 지속되다가 604년(진평왕 26)에 폐지되었으며, 대신 북한산주가 부활하였다.

2. 통일신라시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함으로써 마침내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7년에 걸친 신라와 당과의 전쟁 끝에 신라는 평양 남쪽지역만 영유하게 되었다. 당과의 전쟁이 일단락되자, 신라는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685년(신문왕 5)에는 지방통치조직으로서 9주 5소경 제도를 완성시켰다. 서울지역에는 한산주가 설치되었으며, 경덕왕 때 한주로 바뀌었다. 한산주-한주의 중심지가 지금의 어디인지 분명치 않으나, 유적조사 결과로는 하남시 이성산성二聖山城과 광주시 남한산성南漢山城이 유력하다. 남한산은 한때 일장산日長山이라고도 하였는데,²⁸⁾ 그곳에 축조된 일장산성은 흔히 주장성畫長城으로 불리었다.²⁹⁾ 주장성은 672년(문무왕 12)에 쌓았다³⁰⁾는 기록이 있다. 반면 남한산의 북쪽 줄기에 쌓은 이성산성에 대한 문헌기록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성벽의 축조기법이나 내부 출토 유물의 종류·위격에 비추어볼 때 신라의 신주, 한산주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

2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4년.

28)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 산천.

29)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 고적.

3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4년.

3. 고려시대

1) 군현제

고려시대 광주지역은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였으며 광주목이라 불리었다. 즉 신라의 삼국 통일기에 문무왕이 이 지역을 접수하여 한산주라고 고쳤다가 다시 남한산주로 고쳤고, 756년에 한주라고 이름을 고쳤다. 고려 태조 왕건이 940년(태조 23)에 11개 주로 개편할 때 광주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채 포함되었으며, 983년(성종 2) 전국에 12개 목牧을 설치 할 때도 광주목이 있다. 995년에는 12개 주에 절도사를 파견하였는데, 광주는 봉국군절도사奉國軍節度使라 칭하여 관내도에 소속시켰다. 1018년(현종 9)에 전국에 8개 목을 확정하였는데, 광주목은 그중의 하나로 산하에 4개 속군과 3개 속현을 거느리고 있던 대응이었다.

2) 격동의 현장

광주는 삼국시대에도 초기 백제의 도읍지로 추정될 만큼 전략상 요충지였고, 각국의 주요 쟁탈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고려시대의 광주는 한반도 중부의 요지이자 핵심지역으로 인정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 때 발발한 전쟁 가운데 광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거란전쟁이다. 993~1019년까지 27년 동안 약 14회 정도 거란과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했는데, 남아 있는 기록이 많지 않아 전쟁 동안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은 1011년(현종 2) 1월에 현종이 거란의 거센 침공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개경에 있지 못하고 광주를 거쳐 나주로 몽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현종이 광주에 머문 기간은 3일이었다.³¹⁾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개경을 벗어난 현종은 몽진하는 곳마다 크고 작은 저항에 부딪혔다. 적성현(연천) 단조역에서는 군사들이 역인驛人和 공모하여 행궁을 침범하려고 시도했다. 창화현(양주)에서는 아전들이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현종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또 급히 남하하는 와중에 왕후와 길이 어긋났다가 간신히 다시 해후할 만큼 왕의 피난 행차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³²⁾ 몽진하는 도중에 온갖 신변의 위협을 당한 현종이 왕후를 찾은 직후에 머문 곳이 광주였다. 현종이 광주에서 3일이나 머물렀다는 사실은 현종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비교적 안전하다

31)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2년 정월 을해, 무인;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년 정월 을해, 무인.

32) 『고려사』 권94, 열전7 지채문.

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몽골전쟁을 살펴보자. 10~12세기까지 동북아시아는 고려를 위시하여 송·요(거란)·금(여진)이 비교적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복합적인 외교 질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 변방에 불과하던 몽골이 성장하면서 그 질서는 와해되었고, 몽골에 의해 패망하거나 그 세력권 아래 놓이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고려는 1231년(고종 18) 몽골 침공을 받은 이후로 1259년까지 30여 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삼별초가 1273년(원종 14)까지 제주도에 서 항쟁한 기간을 합친다면 몽골전쟁은 40여 년에 이른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었고, 유라시아 전역에서 고려만큼이나 몽골과 오랜 기간 싸우고 저항한 나라도 드물다. 이 점은 군사 대국 몽골을 맞이하여 끝까지 고려의 자존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하며, 그 항쟁의 근거에는 바로 고려의 민중들이 있었다.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수행하는 양상은 이전에 거란과 전쟁을 치르던 때와 사뭇 달랐다. 거란군이 경기 이남으로 깊이 진격하지 않은 것과 달리 몽골군은 한반도 전역을 전장화했고 유린했다. 여기에는 고려 조정이 강화로 천도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광주지역은 몽골의 침략이 시작된 1231년(고종 18)부터 이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깊숙이 자리했다. 이는 다음의 『고려사』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몽골 군사가 광주·충주·청주로 향하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잔인하게 죽이지 않음이 없었다. (1231년 12월)³³⁾
- 몽골병 3,000명이 고주高州(함남 고원)·화주和州(함남 영흥) 두 고을의 경계에 와서 둔을 치고, 척후 기마병 300여 명이 광주에 이르러 가옥들을 불살랐다.³⁴⁾ (1253년 8월)
- 척후 기마병이 광주에 이르렀다.³⁵⁾ (1254년 8월)

1232년(고종 19) 몽골군이 고려를 재침했을 때에 광주에서는 광주부사 이세화가 이끄는 광주 주민이 몽골군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전투는 『고려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비록 기록은 불충분하지만 광주지역이 중부 내륙으로 통하는 요지로서 전쟁 개시부터 종전까지 몽골군의 침입을 자주 받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 주민들은 어떻게 몽골군에 대처했을까? 1235년 고종이 광주지역에 면세 조치를 내리는 기록을 보면, “조詔하기를 ‘광주는 신묘년(1231), 임진년(1232)에 오랑캐 군사들이 에워싸고 공격했으나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으니 상요常搖와 잡역을 면

33)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 18년 12월.

34)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 40년 8월.

35)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 41년 8월.

해주라'고 하였다"³⁶⁾고 되어 있다. 고종이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면세 조치를 내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231년과 1232년에 광주에서 대규모 전투가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1231년은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처음으로 압록강 하구 관문인 함신진(평북 의주)을 거쳐 고려를 침공한 해다. 몽골군은 귀주성에서 박서가 이끄는 고려군의 강력한 항쟁으로 4개월 정도 발이 묶였고, 계속되는 공격 실패로 상당수의 병력을 북방 요새에서 농성 중인 고려군을 견제하기 위해 북부에 주둔시켰다. 그 대신 선발부대를 남쪽으로 파견하여 서경을 거쳐 개경을 공격하도록 했다. 광주에 진격한 몽골군은 이미 서경, 개경을 거쳐 오는 사이에 "가옥을 불 지르고 주민들을 죽이고 노략질 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³⁷⁾고 할 정도로 통과하는 곳마다 파괴 및 학살을 일삼았다. 고종이 지적한대로 광주지역이 "오랑캐 군사들이 에워싸고 공격했으나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다"고 하니 몽골군의 무차별한 공격을 잘 이겨냈던 것이다.

제4절 조선시대

1. 외관제 운영과 광주의 위상

조선 초 광주에는 목사가 수령으로 파견되고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 광주가 지주사에서 목으로 복구되었기 때문이다. 1393년(태조 2) 11월에 양계를 제외한 각 도의 계수관을 정하고 있는데, 경기좌도의 계수관은 한양 철원, 경기우도의 계수관은 연안·부평이고, 광주는 충주·청주·공주·수원 등과 함께 양광도의 계수관으로 설정되었다. 광주가 경기에 속한 것은 1395년(태조 4)부터이다. 이때에 종전 경기에 속했던 평산·배천·신은·협계는 수도의 남하에 따라 수도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었으므로 황해도로 이속시키고, 대신 양광도의 광주·수원·양근·처인·이천·천녕 등은 경기도에 귀속시켰다.

1413년(태종 13)에는 지방행정구획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고을 명칭의 일제 정비가 이루어져 정3품 품계의 목사가 수령으로 파견되는 큰 고을에만 지명에 '주' 자를 사용하기 시작했

36)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진흥 은면지제.

37)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8년 11월 신해.

다. 광주는 전국 20목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명칭의 변경 없이 정3품의 목사가 수령으로 파견되었다. 광주목은 1504년(연산군 10)에 고을 안에 살던 백성 지개동의 난언으로 한때 혁파된 적이 있었다. 선왕의 능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파당했고, 관할 지역은 공지로 하여 유행 지소로 삼고 행정사무는 이웃 고을에 분속되었다. 그 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축출됨에 따라 광주는 복구되었으며, 이후 조선 말까지 존속되었다.

조선시대의 읍호승강은 토지의 광협과 인구의 다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고을 안에서 모반이나 강상사건이 발생하면 고을을 혁파하거나 읍격을 강등시키기도 하였다. 광주에서도 조선 중후기에 여러 차례 역모나 강상사건이 발생하곤 하였다. 하지만 광주목에 선왕의 능침이 있었기 때문에 연산군의 혁파 이후에는 한 번도 혁파되거나 읍격이 강등당한 적이 없었다. 광주목에는 태종의 능으로 원경왕후를 부장한 현릉(顯陵), 성종의 능인 선릉(宣陵), 중종의 능인 정릉(靖陵) 등이 있었다. 조선 초기 계수관 고을에 해당하는 광주목이 거느린 고을로는 여흥도호부·양근군·음죽현·이천현·과천현·천녕현·지평현·금천현 등이다. 아직 도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의 과도기적 성격이 반영된 상황이었다.

조선시대의 8도제하에서 각 고을의 수령들은 고을의 위격에 관계없이 모두 관찰사의 관찰하에 놓여 있었다. 즉 경기에 파견된 관찰사가 도내 모든 고을을 관할하면서, 외관들을 포폄(褒貶)하고 있었고, 고을에 파견된 수령 상호 간에는 행정적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병렬적인 관계였다.

8도제가 확립된 이후, 경기관찰사가 근무하는 경기감영은 본래 수원에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각도 도총조에 의하면, 각도의 감영 소재지를 치사모지(置司某地)라 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경기는 수원이 감영소재지임을 밝히고 있다. 『세종실록』을 보면, 광주도 한때 감영소재지였음을 알 수 있다. 1448년(세종 30)에 감사검목법을 시행하면서 논의하는 내용에서 경기는 이미 수원의 옛 감영을 혁파하고 광주로 감영을 옮긴 것이 확인되며, 감사검목법이 시행되면서 조혜(趙惠)가 경기관찰사 겸 판광주목사에 제수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광주가 감영소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 광주에는 정3품의 목사와 함께 종5품의 판관과 종6품의 유학교수관이 1명씩 파견되고 있었는데, 감사검목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별도의 광주목사를 파견하지 않고 경기관찰사가 광주목사의 직을 겸하여 수행하였다. 경기관찰사는 경기감영과 경기도 내의 외관인 도사 1, 목사(대도호부사) 4, 도호부사 7, 군수 7, 현령 5, 판관 5, 현감 14, 찰방 3, 역승 3, 교수 11, 훈도 26, 심약 1, 검률 1 등에 대한 포폄권을 갖고 있었다.

한편 1455년(세조 1)에는 고려 말의 익보제를 취함에 따라 광주는 좌보로서 양주(후보)·수원(전보)·원주(우보)와 함께 중요시되었다. 1466년부터는 진관체제가 창설되면서 광주진관 관

할하에 여주목·이천도호부·양근군과 음죽·지평·양지·죽산·과천현을 두었는데, 이는 지방행정과는 별도로 군사조직상의 편제에 따른 것이었다. 진관체제란 거진을 중심으로 주위의 여러 진을 소속시킴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세조 때 진관체제가 확립되면서 광주진관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광주목사는 병마첨절제사를, 이외 수령들은 병마동첨절제사와 병마절제도위를 겸하였다.

광주목사는 행정적으로는 광주목의 책임자였지만 군사상으로는 광주진관의 병마첨절제사를 겸하여 여주·이천·양근의 동첨절제사, 광주(판관)·여주(판관)·지평·음죽·양지·죽산·과천의 절제도위 등 예하 8개 군현을 통할하였다. 광주목의 관내만을 통솔하는 광주병마절제도위는 광주판관이 겸하고 있었다. 광주목은 조선 전기를 통하여 행정구획상으로는 광주목으로, 군사편제상으로는 광주진관의 관부로서 대체로 16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광주는 정묘호란 직후부터 군사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호란이 수습되면서 1628년(인조 6)에는 광주목사로 하여금 남한산성 방어사를 겸하게 하고, 읍치를 산성으로 옮겨 산성의 방어태세를 갖추어 갔다. 아울러 인조반정 이후 대청강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수어청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1636년에는 광주목사를 광주부윤으로 승격시켰다. 그런데 행정책임자인 광주부윤과 군사책임자인 수어사의 이원체제는 업무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시켜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결국 1683년(숙종 9)에 남한산성 옹행절목에 따라 수어경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곳에 두었던 군기를 산성으로 옮기고,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켜 행정과 군사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유수직의 품계가 높아 재신을 파견하기 때문에 자주 교체되어 군무가 소홀해진다는 등의 폐단이 지적됨으로써, 7년만인 1690년에 다시 광주부윤을 두고 전과 같이 이원체제로 환원하였다. 그 후 영조 때에 이르러 양역변통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마침내 1750년(영조 26)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비를 줄여보자는 뜻으로 다시 광주유수를 임명하여 수어사를 겸하게 하고, 행정과 군사의 일원적 지휘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역시 전과 같은 문제가 노출되어 1579년에 다시 유수를 혁파하고 부윤을 두었다.

광주에 유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정조 때에 이르러서이다. 1793년(정조 17)에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킨 정조는 이어 광주의 군비체제도 정비하고자 했다. 1795년 8월 정조는 제신회의를 소집하여 국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군정이라고 하면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수어청의 변통문제를 제의하고 제신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제신들이 논의한 결과 마침내 수어경청을 혁파하고 광주부를 승격시켜 유수로 하면서, 아울러 그 시행 지침을 세밀히 작성케 하여 광주부유수 겸 남한수어사출진절목을 작성 보고하니, 이로써 광주부 유수관은 관제로 정착되었다. 이 시기의 관안에는 광주부가 외안이 아닌 내안內案

에 기재되어 있다. 즉 광주유수는 지방관이 아닌 경관이었다.

남한산성 및 광주를 주관하는 광주유수는 한성부와 같은 정2품의 품계를 받았으며, 광주유수가 수어사를 겸하여 군무를 주관하였다. 또한 광주유수부에는 종5품의 판관을 두어 행정실무를 주관하게 하였고, 종9품의 검률 1명을 두어 사법행정의 실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80명의 서리를 배속하고 있었다. 광주부에 수어청을 설치하고 광주유수로 하여금 수어사를 겸임케 하여 휘하의 군대를 통솔하도록 하였는데, 유수가 통솔하는 군대는 일반 행정조직과는 별도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어 있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수어사 1명(정2품, 유수 겸임), 중군 1명(정3품), 진영장 3명(정3품, 전영장은 본부 판관, 중영장은 양주목사, 후영장은 죽산부사가 겸함), 별장 2명(여주목사, 이천부사가 겸함), 파총 2명, 초관 26명, 교련관 17명, 기패관 19명, 별군관 9명, 수첩군관 61명 등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 이후 새로운 행정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지방제도도 개편되었다. 전문 6조의 칙령 98호로 발표된 지방제도의 대개혁으로 8도제가 23부제로 개편된 것이다. 이 개편에서 종래의 부목군현은 군으로 통일되었고, 23부에는 관찰사 1명씩을 두어 23부와 군의 이원적 구성을 이루었다. 광주는 종래의 광주부에서 광주군으로 바뀌었다. 9월에 칙령 164호로 공포된 「군수관등 봉급에 관한 건」에 의거, 제1등군으로 되었다. 그러나 23부제의 새 지방제도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실시 1년 여만에 폐지되고, 1896년 8월 칙령 제36호로 발표된 「지방제도 관계 봉급 경비개정의 건」에 의해 다시 개편, 13도제로 개편됨에 따라 광주는 다시금 1등군 고을로 광주군이 되었다.

2. 영역과 면리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광주목의 사방 경계는 당시의 고을읍치(현 하남시 춘궁동)로부터 동은 양근 용진까지 30리이고, 서는 과천을 지나 수원과 경계하고, 성곶까지는 85리이며, 남은 이천 양지까지 45리이다. 북은 양주까지 11리로서 동서가 115리, 남북은 56리이다. 광주목의 영역이 경기도 내에서 양주와 더불어 가장 큰 대읍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조선 초기 광주목 관할의 행정구역은 동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이수두)에서 서쪽으로 경기만까지 연속되어 있었다. 마재 인근의 봉안역과 현 창우리로 추정되는 나루터인 도미진을 관내에 두고 있었으며, 특성상 해안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염소가 소속되어 있었다. 염분 하나와 2곳의 염구를 가진 염소는 지형상 경기만에 면한 성곶 앞 간석지에 있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여지도서』에서는 광주의 영역에 대해 동으로는 이천 경계에 이

르기까지 70리, 서로는 과천 경계에 이르기까지 30리, 남으로는 용인 경계에 이르기까지 40리, 북으로는 양주 경계에 이르기까지 30리라고 하였으며, 서쪽으로 경도京都, 즉 서울까지의 거리는 40리이고, 경기 감영까지는 50리로 한나절 걸리는 거리라고 하였다.

광주 관할지역 소속의 면별 명칭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여지도서』로, 경안면, 오폐면, 도척면, 실촌면, 초월면, 퇴촌면, 초부면, 동부면, 서부면, 구천면, 중대면, 세촌면,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 언주면, 의곡면, 왕륜면, 월곡면, 일용면, 북방면, 송동면, 성곶면 등 23면이 보인다. 『호구총수』에는 23면과 131리 3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23면은 경안면, 오폐면, 도척면, 실촌면, 초월면, 퇴촌면, 초부면, 성내남동내, 성내북동내, 동부면, 서부면, 구천면, 중대면, 세촌면,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 언주면, 의곡면, 왕륜면, 월곡면, 북방면, 성곶면 등으로 『여지도서』와 면의 수는 동일하지만, 일용면과 송동면이 빠지고 대신 성내남동내와 성내북동내가 추가되어 있다. 일용면과 송동면이 빠진 것은 1789년 정조가 수원부 신읍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옮기고 광주의 송동면과 일용면을 수원부에 이관하는 등 신도시를 진흥시키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18세기 말에 간행되고 19세기 중엽에 중간된 『남한지』에 의하면, 광주 전역을 지역별 위치에 따라 상도·중도·하도의 3구역으로 나누고, 상도에 7면(경안, 오폐, 도척, 실촌, 초월, 퇴촌, 초부), 중도에 9면(동부, 서부, 구천, 중대, 세촌, 돌마, 낙생, 대왕, 언주), 하도에 7면(의곡, 왕륜, 북방, 월곡, 성곶, 일용, 송동) 도합 23면을 분속 설치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하도 7면 중 일용면과 송동면이 1790년(정조 14) 수원부로 이속되기 이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906년에는 칙령 제49호로 발포된 「지방구역 정리의 건」에 의해 조선 초기 이래 실시해 오던 두입지제를 폐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었다. 두입지제란 견아상입지제라고도 하는데 행정구역을 마치 개犬의 위아래 이빨처럼 서로 엇물리는 모양을 본 뜬 것으로 한 고을이 길게 다른 고을로 뻗어 들어가고 또 그 고을은 또 다른 고을로 길게 뻗어 서로 엇물리게 경계를 정하는 제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지방관이 모반하였을 때 인접한 다른 고을에서 진압 공격하기 쉽도록 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도 이 방법을 채용하여 지방의 구획을 정하였던 것이며, 이제 그 두입지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대폭 정리, 개편하게 된 것이다.

광주의 조선시대 월경지(비지)와 견아상입지(두입지)는 내륙에는 광주목의 직촌 초부면이 양주 동남쪽 소속읍과의 거리가 40리였으며, 연해에는 광주목의 직촌 성곶면이 안산에 연해 있었다. 종래 광주의 두입지였던 초부면은 양주군에, 월곡·북방·성곶 등 3면은 안산군에 각각 이속되었다. 이로써 광주군은 17면만 포용하게 된 셈이나, 성내각리와 동부 경안면의 일부를 합쳐 군내면으로 편성 결국 18면으로 구성되었다.

3. 지방지배세력 등장과 영향력

광주는 수도 한양의 동남부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규모가 큰 고을이었다. 광주에 남한 산성이 축성되고 군사 요충지로 중요시되어 유수부로 승격되었으며 개성·강화·수원과 함께 서울을 방어하는 4대 군사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도 광주는 18세기 이래 한양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증가와 상품 화폐경제 발달의 영향으로 부도심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왕도의 직할지이자 군사·행정상의 요충지로 기능해 왔고 또한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던 유력한 정치세력의 재향 기반이기도 하였다.

광주를 포함한 경기지역의 사족은 흔히 삼남지역이라 불리는 경상·충청·전라지역의 사족에 비해 존재 양상을 달리하고 있었다. 대체로 삼남지역의 사족은 향안(鄕案)을 중심으로 한 사족 지배질서를 구축해 나갔던 데 비해, 경기지역의 사족들은 서울의 경저(京邸)와 향촌의 향저(鄕邸)를 각기 경영하며 존재하였다. 즉 이들은 향촌에 세거의 터전을 마련하여 거주하다가 관직으로 현달하면 생활기반을 한양으로 옮겨갔지만, 향촌에 존재한 그들의 선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정치적 피화기 등에 잠시 머무는 지역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의 확산 과정 속에 17세기 중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하였다고 알려진 동족마을의 등장이라는 향촌 내의 변화성과 함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이 지역 사족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목해야 할 요인임을 말해 준다.

조선 건국은 광주지역 재지세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거해 왔던 여러 성씨들은 정치사회적 격변 과정에서 대부분 그 기반을 잃고 쇠락해 갔고 일부 성씨만이 신왕조의 정치세력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15세기 광주지역 재지세력의 동향에 대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 광주의 성씨를 보면, 토성은 이李·안安·김金, 가속성(加屬姓)은 박朴·노盧·장張, 망성(亡姓)은 윤尹·석石·한韓·지池·소素 등이다. 고려 말의 혼란 과정에서 지역적 기반을 잃어버렸던 망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 사족의 재편이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조선 건국 이후 중앙집권화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토착 성씨들도 세력 분화 과정을 겪었다. 대체로 광주지역의 성씨 가운데 조선에 들어와 사족으로 지위를 유지한 가문은 토성 중에서 이씨와 안씨였다. 이러한 토성의 재편과 함께 광주지역 재지사족의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16세기 이후 새로이 이주해 온 이성(移姓)들이 성장하여 이 지역의 유력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성씨의 이주는 조선 전기의 경우 균분상속제의 사회적 관행에 따라 혼인을 통한 재산의 분급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자신들의 근거를 마련해 나갔다. 이 시기 광주지역에 새로 이주한 성씨들로 이후 활동을 주목할 수 있는 가문으로는 능성구씨, 동래정씨, 순흥안씨 등을 들 수 있다.

17세기 광주 사족의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에 걸친 전란의 충격과 향촌사회의 변화, 중앙에서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한 사림정치의 전개는 이 지역 사족세력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훈구적 성향의 가문들이 주도했던 이전의 상황이 이거성씨가 중심이 된 사림계의 주요 가문에게 향촌의 주도권이 점차 넘어가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사림정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붕당朋黨 간의 분립이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때이기도 하였다. 광주지역 사족도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가문이 나타났고, 중앙 정국의 상황에 따라 가문의 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4.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 임진왜란

(1) 왜란의 피해상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조선 침략 선봉군 1만 7,000여 명을 태운 일본 군선 700여 척이 부산 앞 바다에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왜군이 해안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은 시작되었다. 개전 초기에 조선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었으므로 왜군은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나 1593년 1월 8일에 조·명 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면서 전세는 뒤집혔다. 서울까지 후퇴한 왜군은 2월 해주산성에서도 패하자 강화 회담을 제의하면서 후퇴했다.

일본은 1596년 9월 평화회담이 결렬되자 1597년 정월에 1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재침을 기도하였다. 왜군은 이번에도 직산에서 북진이 좌절되자 남쪽 해안지역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왜군이 총퇴각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무모한 침략야욕으로 시작된 7년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막을 내렸다. 조선은 국외 정세에 무관심하고 군비를 게을리 한 결과 7년간 전쟁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피해는 한양뿐만이 아니었다. 한양이 수복된 이후에 집계된 상황에 따르면 조선은 전국토의 절반 이상이 왜군에게 피해를 입었다. 328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무려 181개(55.2%)가 피해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는 37개 읍 가운데 35개 읍(94.6%), 경상도는 67개 읍 가운데 48개 읍(71.6%)이 피해를 입어 이 지역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하였다.⁸⁰⁾

경기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던 이유는 경기가 서울로 진입하는 경로였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는 진관체제에 따라 경기의 거진巨鎭으로서 여주·이천·양근·지평·음죽·양지·죽산·과천 등을 관할하고 있었다. 광주가 관할하던 곳은 대부분 왜군이 북상하는 경로에 있는 지역이었고, 그 결과 매우 심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³⁸⁾

한편 전쟁 피해 이외에 광주지역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은 토적土賊들의 발호였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난으로 인한 기근이 악화되고 민심도 흉흉해지면서 전국 각처에서 토적이 일어났다. 1594년에 “광주·이천·양근·죽산에 토적이 성행하여 살육과 약탈을 자행한다”³⁹⁾는 사헌부의 지적처럼 광주 주민들은 토적이 횡행하면서 더 큰 고통에 빠져들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 악명이 높던 현몽玄夢이 이끄는 토적들이 광주·이천의 산골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현몽은 경기에서 활약하는 적괴賊魁 중에서 가장 사납다고 알려진 인물로서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못할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했다. 관군官軍이 많은 도적들을 소탕하여 평정했을 때에도 현몽만은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한다.⁴⁰⁾

(2) 광주 주민의 활약

광주가 왜군의 공격을 받은 때는 1592년 4월부터 1593년 5월 사이였으며, 1592년 7월에는 ‘함주陷州(광주 함락)’⁴¹⁾라는 표현을 쓸 만큼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왜군은 1592년 5월 3일에 수도 한성에 입성했다가 1593년 4월 18일부터 한성에서 철수하여 중로를 경유하여 경상도로 남하했다. 조·명 연합군이 한성에 입성한 날이 4월 20일이며, 선조가 환도한 때는 10월 1일이었다. 그러므로 한성의 진입로에 있던 광주는 왜군이 한성을 점령 철수한 전후에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주민들은 임진왜란 초창기 승승장구하던 왜군의 침입에 어떻게 맞섰을까? 『남한지』에 따르면,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 광주목사는 유자신柳自新이었는데, 안악군수로 부임한 상태였다. 이해 6월에 임시로 섭주사攝州事 박선朴宣이 부임했으나 7월에 왜군이 침입하자 양근군 이원현으로 도망갔다. 또 7월에 어득해魚得海가 임시로 부임했다가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고 전하고 있다.⁴²⁾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사항이 바로 목사 어득해가

38) 서인한, 『壬辰倭亂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269쪽.

39) 『선조실록』 권42, 선조 26년 9월 계축.

40)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 9월 26일 신축.

41) 『선조실록』 권56, 선조 27년 10월 9일 계축; 『선조수정실록』 권28,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42) 『중정남한지』 권9, 성사 조선 선조 25년.

43) 『중정남한지』 권6, 명환 조선조 목사.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부분이다. “섭주사 어득해가 용진龍津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추격하여 도미진에 이르렀으나 군사가 패하면서 전사했다”고 적고 있다.⁴⁴⁾ 용진龍津은 한강 상류에 있는 진으로 이천부사 변응성邊應星이 승군僧軍들과 함께 지키던 곳이었으며, 도미진은 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던 진이었다. 비록 어득해가 광주 도미진에서 패해서 전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지휘관이 전사할 정도였다면 이 무렵 광주 주민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리라 예상된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광주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1592년 9월 경기관찰사로 부임한 심대沈岱는 이정암·김천일과 함께 서울 수복작전을 계획하면서 광주·파주·양주 의병을 이끌고 한성을 협공하고자 했다.⁴⁵⁾

광주에서 조직된 의병은 1592년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했다고 여겨진다. 1593년 12월 비변사는 선조에게 경기감사 이정형李廷馨의 장계를 인용하면서 “장단·양주·과천·금천·광주 등의 주민들이 모두 적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병을 규합하거나 수령의 지휘하에 매복 공격을 펼쳐서 참획한 수급이 많으니 매우 가상합니다”고 하면서 광주 및 해당 지역의 군졸·주민에게 요역徭役을 감해주는 특전을 내리도록 건의했고, 선조가 흔쾌히 수락했다.⁴⁶⁾ 요역이란 국가가 필요에 따라 민의 노동력을 대가없이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징발하는 인세人稅의 하나로 개별 민호에 부과되었다.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존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선조는 전쟁 중 공로를 세웠는데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보고하도록 했다. 1599년 12월 경기방어사 권준權俊이 선조에게 광주에서 활약한 의병들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⁴⁷⁾

지금 광주에 사는 전 주부 이응길(李應吉) 등 25명이 연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도성이 함락되고 고을들이 짓밟힐 때, 이 고을에 살던 내금위(內禁衛) 권응원(權應元)·구진(具縉) 등이 의리를 앞세우고 군대를 모집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한양을 왕래하는 적을 무찔러서 참살한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권준이 찾아낸 이 사람들은 도내 사람들에게 자세히 탐문하고 조사한 결과였다. 더구나 권준이 찾아낸 권응원·구진 등은 왜군이 1592~1593년 사이에 정릉靖陵을 파헤쳤을 때에 왜군을 퇴치한 공로도 세운 사람들이었다. 더 이상 사료가 없어서 이들에 대한 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례는 광주지역 의병들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44) 『중정남한지』 권9, 성사 조선 선조 25년.

45) 『선조실록』 권30, 선조 25년 9월 21일 무인.

46)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47)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10일 을유.

(3) 남한산성의 위상 강화

1593년 1월 제2차 평양성전투에서 승리한 조선은 왜군의 침입에 무력하게 무너진 방어체제를 전면 재검토했다. 그중 성곽의 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병력과 무기 면에서 조선보다 우세한 왜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정책적으로 조선의 성곽을 재정비하자고 적극 나선 사람은 당시 전시 책임자인 영의정 유성룡이었다. 산성의 이점으로 제시한 사항을 보면, 첫째, 높은 곳에 있어 적을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왜의 장기는 무용지물이 된다. 둘째, 토산土山이나 구름사다리를 놓을 곳이 없어서 성 안의 동정을 정찰하지 못한다. 셋째, 왜군이 비록 용감해서 돌격전을 잘해도 산 밑에서 기어오르다보면 성 밑에 이르러 기진맥진하게 된다.⁴⁸⁾ 무엇보다도 그가 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에는 산성이 적을 막음과 동시에 백성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산성을 이용해 ‘어적禦敵’과 ‘보민保民’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청야입보책을 제시하였다. “비록 적이 한 도에 가득해도 완전한 읍이 많이 남을 수 있는”⁴⁹⁾ 방책으로 주목한 것이다. 더구나 조선은 왜군이 파죽지세로 도성까지 밀고오자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 가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당시 피난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태가 위급할 경우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서 명에 의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때 유성룡은 선조에게 “임금께서 우리 땅을 단 한 걸음이라도 떠나신다면 조선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동북의 여러 도가 건재하고 호남지방의 충신스러운 의사義士들이 며칠 안에 일어날 텐데 어찌 경솔히 나라를 버리고 압록강을 건너는 일을 의논하겠습니까?”라고 눈물로 호소했다.⁵⁰⁾ 그러므로 전시 책임자였던 유성룡이 선조가 환도한 후에 도성 방어에 주력한 것은 국왕의 피신이라는 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그 일환으로써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인 부분이 경기지역이었다.

조선 전기 진관체제에서 경기는 도성을 감싸는 외곽지대로서 수도 방어에 집중하도록 진鎭이 설계되었고, 곳곳의 관방關防이 서로 성원하는 형태를 띠었다. 예컨대, 양근의 남산南山과 용인의 석성石城은 파사산성 및 남한산성과 서로 성원하는 형태였다. 그리하여 1592년 10월 유성룡이 수립한 도성수복작전도 경기의 여러 읍들이 동·서·남 3면에서 서로 호응해 적의 형세에 따라 군사를 나누거나 또는 연합하여 공격하는 방법이었다. 이때 광주는 과천·금

48) 조정기, 『서애 유성룡의 국방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2~113쪽.

49) 유성룡, 『징비록』 권7, 진사록, 馳啓驛路之弊且請修葺山城以爲保守狀(壬辰).

50)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천·수원·양천·용인·안성의 군대와 함께 남쪽을 막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했다.⁵¹⁾

유성룡은 도성 수복 이후에도 도성 방어작전으로서 이 계획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한강 이남에 주둔하면서 한성을 호시탐탐 엿보는 왜군을 막아내기 위해 도성을 감싸는 경기지역의 방어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조에게 광주·남한산성, 수원·독성, 금천·금지산을 활용하여 호남을 방어하자고 건의했다.⁵²⁾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의 군인들을 한 곳에 모아 군사 조련을 실시했다. 1597년에는 직접 남한산성을 답사한 후 선조에게 남한산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성곽을 보강하도록 건의하여 남문과 수구문은 수리되었으나 전쟁 중이어서 물력과 인력을 동원하기에 한계가 있었다.⁵³⁾ 그 결과 현재 모습으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한 것은 이괄의 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 2)이었다.

2) 병자호란

(1) 병자호란의 전개

병자호란은 비록 2개월 여 만에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은 임신왜란 못지않게 심각했다. 국체의 상징인 국왕 인조를 ‘오랑개 추장’ 썸으로 여겼던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라는 치욕적인 항례降禮를 올렸고,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사서인土庶人들이 포로로 잡혀 청으로 끌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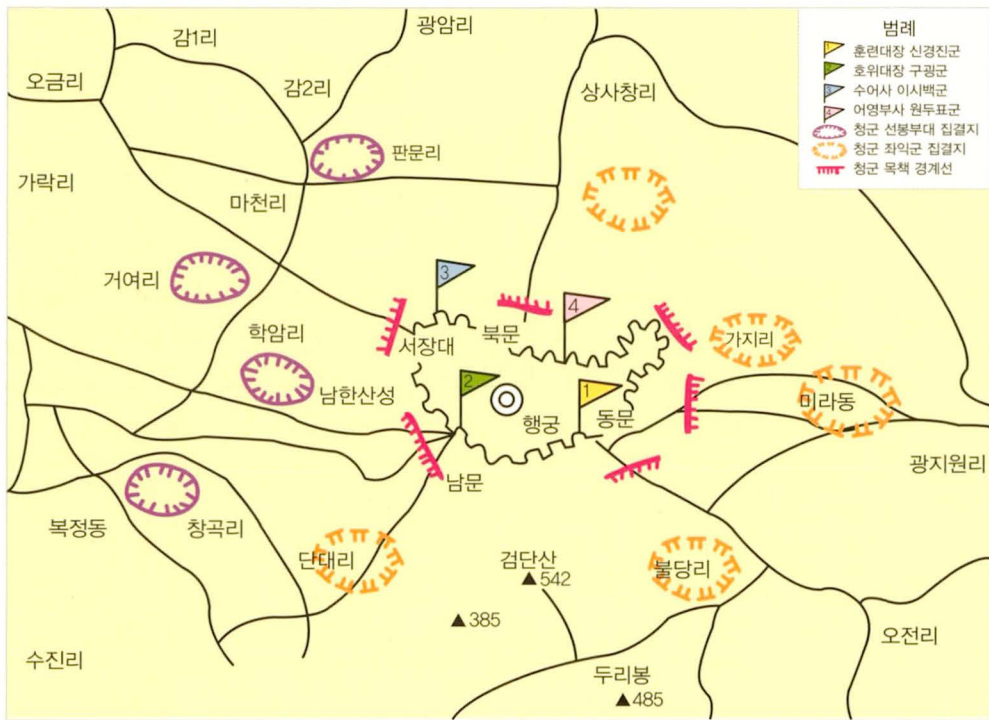
청군의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다다른 것은 1636년(인조 14) 12월 8일의 일이었다. 정묘호란 이후부터 조선을 치밀하게 ‘연구’ 해 온 청은 조선이 유사시 강화도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여, 그것을 차단하고 인조를 속히 사로잡기 위해 질풍같은 속도전을 감행했다. 13일 적이 평양에 당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조정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창덕궁에 머물던 인조가 피난을 준비할 당시 청군 기마대는 이미 양철평(良鐵坪, 현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까지 들이닥친 상태였다. 인조가 강화도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서, 겨우 남대문 부근에 이르렀을 때 청군은 김포에서 강화도로 이르는 길을 이미 차단했다. 이에 최명길(崔鳴吉)이 홍제원으로 가서 청군 장수들을 만나 시간을 끄는 사이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⁵⁴⁾

51) 조정기, 『서애 류성룡의 국방정책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37~138쪽.

52) 『선조실록』 권43, 선조 26년 10월 22일 임인.

53)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54) 『청태종실록』 권33, 승덕 2년 1월 병진.



남한산성 농성 초기 상황도(1636. 12. 15~30)

남한산성에 들어온 직후부터 산성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시 강화도로 갈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류 등 일부 신료들은 남한산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가야 한다고 채근했다. 산성이 비록 험하지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식은 한강 물이 아직 녹지 않아 배가 하루에 한 편 밖에는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강화도 행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홍서봉도 '남한산성이 천하의 요새'임을 강조하고 다만 저들이 장기간 포위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⁵⁵⁾

남한산성을 버리고 다시 강화도로 가자는 주장은 수그러들었다. 청군이 곧바로 산성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15일 인조의 입성 사실을 인지한 청군 선발대는 남한산성으로 달려갔다. 이때 도도, 요토 등의 병력도 잇따라 도착하여 성을 포위했다. 그들은 남한산성 주변에 목책을 설치하여 성과 외부의 연결을 차단했고 남한산성은 곧 고립되고 말았다. 17일 적병이 남문 부근으로 몰려오자 조선 조정은 도체찰사 김류 등 4명의 대장에게 군대를 나누어 파수토록 조치했다. 동문은 신경진, 서문은 이시백, 남문은 구광, 북문은 이서에게 각각 방어를

55) 『남한일기』, 병자 12월 14일.



남한산성 서문 전투도

맡겼다. 인조는 약 1만 4,000명의 병력을 각각 3,000명씩 나눠 각 수비군 진영에 배치하고 기타 문무백관과 종실 노비들까지도 각 성문의 방어에 협조하도록 조치했다.⁵⁰⁾ 그러나 왕실 가족과 역대 선왕들의 신주神主가 피난해 있던 강화도가 함락되고 병사들 사이에서 출성해야 한다는 외침이 나오면서 인조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 주요 전투 전개 상황

① 남한산성 북문 부근 전투

조정이 여전히 포위되어 있고 지원병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1636년 12월 28일 북문 부근에서 비교적 대규모의 접전이 벌어졌다. 청군은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도 성문 주변에 수시로 출몰하여 조선 군병이나 민간인들을 사로잡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도체찰사 김류는 북문 아래에 있던 청군에 대한 공격을 지휘했다. 청군은 사로잡은 조선인 가

50) 유재성, 『병자호란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150쪽.

운데 노약자와 우마 일부를 북문 아래의 골짜기에 방치하여 조선군을 유인했다. 적의 유인계임을 제대로 알지 못한 병방兵房 비장裨將 유호는 김류의 위세를 빌어 장졸들을 북문 아래로 내몰았다. 약 300명 이상의 정예 장졸들이 강박에 떠밀려 성 밖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들이 포로와 우마를 거두어 돌아오려는 순간 적의 북병이 들이닥쳤고, 조선군은 대부분이 도륙되었다. 당시 조선 장졸들은 충분한 화약을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군의 역습에 휘말린 데다 내려왔던 오르막길로 후퇴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엄청난 희생을 내고 말았다.⁵⁷⁾ 수백 명의 정예병을 잃었던 이 전투를 계기로 산성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비변사 신료들은 더더욱 청군과의 화의에 매달리게 되었다.⁵⁸⁾

② 쌍령전투

남한산성에서는 구원군을 학수고대했지만 외부의 병력은 이런저런 이유로 산성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1637년 1월 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청군은 1월 12일 현릉과 탄천 일대에 배치했던 병력의 일부를 빼서 수원·용인·여주·이천 방면으로 돌려 구원병의 도래에 대비하는 한편 산성의 서문과 북문 부근에 병력을 증강 배치했다.⁵⁹⁾

청군의 포위 병력이 증강되는 와중에 그나마 산성에 가장 근접했던 부대는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 충청병사 이의배 등이 이끄는 병력이었다. 총 3~4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군이었다.⁶⁰⁾ 당시 총사령관 격이었던 경상감사 심연은 전 서윤 도경유를 종사관으로 삼아서 군중의 일을 일임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진군을 독촉하여 원방의 군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군량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행군했다. 더욱이 삼남에서 광주 쌍령쪽으로 행군하면서 척후병을 활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적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행군이 이어졌다.

쌍령에 이르러 민영은 오른편 산등성이에 진을 치고, 허완은 왼편 낮은 곳에 진을 쳤다. 병사들에게 각각 2냥씩 화약을 나눠주었다. 1월 3일 아침, 청군 선봉 33명이 목방패木防牌를 가지고 남산 상봉에 나타나자 아군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니 적은 주춤하고 물러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화약이 떨어진 점이였다. 병사들이 화약을 달라고 잇따라 소리치자 적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적병은 아군이 설치한 목책을 향해 돌격해 오기 시작했다. 안동영장 선세강宣世綱 등이 급한 김에 화살을 연달아 쏘았으나 모두 방패에 맞고 말았다. 적병은 아군 진지 속으

57) 『급보이후일록』, 『병자록』, 병자 12월 28일.

58) 『급보이후일록』, 『병자록』, 병자 12월 28일.

59) 유재성, 『병자호란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150쪽.

60) 『하담과적록』에는 3만, 『연려실기술』에는 4만으로 나온다.

로 난입했고, 아군 포수들은 제대로 사격하지도 못한 채 무너졌다. 적병이 난입하자 좌병사 허완은 달아나라다 말에서 떨어져 피살되었다. 적군이 민영의 진영으로 돌격하자 병사들은 일제히 사격하여 적을 주춤거리게 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화약은 곧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황급히 화약을 다시 분급하는 과정에서 화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의 와중에 사망하는 병졸들이 나오고 진중은 동요했다. 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돌격전을 감행했고, 민영은 전사하고 조선군 진영은 거의 궤멸되었다.⁶¹⁾

적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적절치 않은 지역에 설진設陣한 것, 화약을 충분히 분급하지 않은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처구니없는 패전을 부른 것이었다. 최소 수천 명의 병사들이 죽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⁶²⁾ 워낙 많은 시신이 쌓여 1637년 4월까지도 수습이 제대로 안된 상태였다. 4월에 이르러 예조에서 사람을 모집하여 쌍령과 험천 등지에 쌓인 시신을 거두어 묻고 관원을 보내 제사를 올리자고 건의했다.⁶³⁾

비록 '천혜의 요새'지만 확실히 '준비'되지 않았던 남한산성에서의 저항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일상적인 추위와 점차 다가오는 굶주림의 공포 앞에서 조선의 저항 의지는 날로 사그라졌다. 고대하는 구원군은 오지 않는 가운데, 산성 주변에서 벌어진 소소한 전투에서는 몇 차례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북문 골짜기와 쌍령 등지에서 벌어진 비교적 대규모 전투에서는 참패하고 말았다.

평소 피난처로 준비했던 강화도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인조와 조정은 전쟁의 시작과 수행 과정에서 많은 난맥상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남한산성과 광주 주변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조정에 대한 접제 때문에 시달렸던 것은 물론, 전쟁 자체로 인한 피해도 가장 혹심하게 입었다. 죽거나 다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 호란이 끝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떠도는 참상을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은 남한산성을 다시 수축하려 했고, 그 과정의 부담 또한 광주 주민들이 짊어져야 했다.

61) 「인조조고사본말」, 『연려실기술』.

62)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1월 15일 기묘.

63)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4월 7일 병자.

제5절 일제강점기

일제의 강압으로 주권을 상실한 한국은 일선의 민족자결주의 제창 등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동경에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2·8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운동이 국내에 확산되어 3·1운동이 일어났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약소민족에게 영향을 주어 약소민족 해방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는 평화적·시위적인 운동이나 외국의 도움으로 조국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일제와 대항하려면 민족적 단결과 교육을 통한 각 분야에서의 실력 양성만이 절실하다는 자각 아래 이후의 민족운동은 실력양성운동으로 집약되었다. 민립대학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의 계몽운동 역시 실력양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퇴치운동 및 브나로드운동이 한 예이다. 또한 야학은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에 설치된 비공식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1. 3·1운동

광주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3월 27~28 양일간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고, 4월 6일 실촌면의 만세운동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3월 1일 중앙에서 만세운동이 촉발된 지 25일 만에 일어나 10일 정도 지속되었다. 남한산성과 곤지암 등지가 한말 의병의 격전지로 군민들의 항일 의식이 다른 어느 지역 주민에 못지않았던 것과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란 점에서 '늦게 시작되어 일찍 끝난' 운동이란 느낌이 든다.

이처럼 광주지역의 3·1운동이 인근 지역에 비해 다소 미약했던 이유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인접 지역이라고는 해도 산이 험준하고 경기도의 20개 군 가운데 강화군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철도가 통과하지 않은 지역인 관계로 교통이 불편하여 정보 전달이 그만큼 늦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화기에 있어서도 사회문화적으로 그다지 변화·발전하지 못한 지역적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근대식 학교·우편관서·도로 등 근대적 시설이 별반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다.

3·1운동 당시 만세시위를 주도하거나 추진한 주역은 학생층이나 종교단체가 거의 절대적인 위치였다고 하겠는데, 광주지역은 학교 설립이 타 지역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그만큼 민중을 선도할 지도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할 사회적 리더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늦게 시작되어 일찍 끝난’ 운동이 되고 만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⁶⁴⁾

광주지역 3·1운동의 특징은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먼 지역으로 파급되었고, 연합시위와 면 단위 시위가 전개되는 양상이었다. 중부면의 3·1운동은 서남부 지역의 수진동·탄리·단대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3월 27일 새벽 남한산에 횃불을 올리고 만세를 고창하는 것을 신호로 시작되었다. 3개 마을 주민들은 남한산성 남문 아래 집결한 뒤 산성 안으로 진입, 산성리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오폐면은 추자리·문형리·고산리·양벌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다. 추자리에 살던 정제신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의 취지에 찬동하여 일대 시위운동을 벌이고자 하였다. 3월 28일 새벽 1시 고산리에서 마을 주민 40여 명을 이끌고 마을 뒷산에 올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오전 11시 독립을 염원하며 모인 1,000여 명의 군중들은 오폐면사무소와 광주군청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⁶⁵⁾ 문형리에서도 3월 28일 김인택과 임무경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 30여 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며 30여 분 동안 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오후 2시 경안면 경안리에 위치한 광주군청으로 가서 앞서 모인 광주 군민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 곳곳을 다니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⁶⁶⁾ 양벌리 유면영은 3월 28일 오전 9시경 오폐면사무소 앞에 모인 600여 명의 군중에게 “금후 조선이 독립하면 이런 경사가 다시는 없을 것이니 일동은 힘껏 만세를 부르자”는 요지의 즉석 격려 연설을 하였다.

경안면 경안리에 위치한 광주군청은 독립만세운동 시위대의 표적이 되었다. 3월 27일 헌병대 용인분대 관할하에 있던 경안리 소재 광주헌병분견소는 3,000여 명의 군중이 광주군청으로 밀어닥치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따라 분견소의 주임 상등병은 재향군인과 협력하면서 군중 앞에 나서서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그에게 욕설과 비난을 퍼부으며 더욱 거세게 저항하였다. 이때 주임 헌병은 재향군인과 함께 무기를 사용하여 군중들을 해산시켰다.⁶⁷⁾

6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425~426쪽.

6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 삼일운동 재관기록』 5, 1971, 295~296쪽.

6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삼일운동 재관기록』, 1971, 296쪽.

6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 삼일운동사자료집』 6, 1973, 630쪽.

독립만세운동은 4월에도 계속 전개되었다. 실촌면 이선리 구장 오수식은 3월 초순 이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음을 전해 듣고 실촌면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⁸⁾ 4월 6일 이선리 마을 주민 50여 명을 데리고, 만선리에 모인 200여 명과 합류하여 오전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오향리에 면사무소가 있었음에도 만세시위 장소를 만선리로 정한 것은, 그곳이 곤지암과 양평으로 통하는 길목이자 실촌면의 중심지여서 집결지로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오후 4시경 만선리에 모인 군중은 400여 명이나 되었다. 오수식은 선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 군중을 이끌고 면소재지인 오향리로 향했다. 오후 5시경 오향리 실촌면사무소에 모인 400여 명의 시위대는 독립만세를 부르던 중 실촌면장 구연복 具然福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하였다. 시위대는 다시 곤지암으로 향하고자 하였으나 곤지암 헌병주재소에서 도착한 헌병들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남종면에서는 3월 29일 면소재인 광동리 주민들이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정보가 미리 누설되어 성사되지 않았다. 퇴촌면에서도 3월 30일 면소재지인 분원리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어 성사되지 않았다.⁽⁹⁾

광주지역 3·1운동의 특징은 주도계층이 농업인으로 구장 등이 있었다는 점, 평화적인 시위에서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점, 조선의 독립이 소작제도 등의 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민립대학설립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은 1922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설립될 경성제국대학에 맞서기 위해 민족주의자들이 민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던 운동이다. 광주에서는 1923년 5월 6일 중대면 송파리 광성학교廣成學校 내에서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광주지방부가 창립되었다.

(8) 오수식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9) 광주군지편찬위원회, 『광주군지』, 1990, 358쪽.

3. 농촌계몽운동

농촌계몽운동이란 농민의 의식과 지식, 기술 등을 계몽하거나 개발하기 위하여 학생들 또는 학식 있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하여 농촌사회에 봉사하는 사회교육적 활동이다.

1) 브나로드운동

1931년 7월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규모로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했다. 제3회까지 이 운동을 브나로드운동⁷⁰⁾이라고 불렀으나, 민중이 이해하기 힘들다 하여 제4회부터 학생계몽운동으로 바꾸었다. 한글과 산술을 가르치는 고등보통학교 4·5학년 학생으로 조직된 학생계몽대,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으로 조직된 학생강연대, 여행일기·고향통신·생활수기 등을 써서 신문에 보내는 임무를 맡은 학생기자대 등이 조직되어 활동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브나로드운동을 보면, 1931년 이재택·서순범·안병윤 외 4명의 대원이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활동한 결과 총 140명의 강습생이 참가하였다. 강습생은 남학생이 90명이었고, 여학생이 40명이었다.⁷¹⁾ 제2회 브나로드운동에 참가하였던 안봉현의 경우 당시 배재고보 2학년이었다.⁷²⁾ 도척면 궁평리에서 활동하였는데, 궁평리 예배당에서 7월 28일부터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쳤다. 제3회와 제4회 활동에서는 남한산보통학교에 다니는 송인범이 상대원리에 거주하는 6~10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문자 교육을 하였는데 학생수는 남자 43명이었다.

2) 야학과 비정규 교육기관

보통학교를 통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야학활동이 전개되었고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광선의숙은 현대적 교육이 급선무임을 자각한 유지들에

70) 본래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말로 러시아 말기에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면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구호이다.

71) 『동아일보』 1932년 10월 6일, 「금년 夏休利用 제1회 브나로드운동 總決算」.

72) 『동아일보』 1932년 7월 3일, 「제2회 브나로드계몽대원 참가씨명」.

의해 설립되었고, 설립금은 문씨 문중의 저축금으로 충당하였다.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문흥규를 강사로 초빙하여 3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경도제국대학에 재학 중인 문목규는 재외 학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비로 60원의 거액을 보조하기도 하였다.⁷³⁾

광주지역은 개신교에서 야학활동을 전개한 경우가 많다. 분원리의 남감리교회는 부인야학을 개설하여 한글·아라비아 수학·가정·상식 등을 가르쳤는데, 학생은 부녀 20여 명이였다.⁷⁴⁾ 또한 이 교회에서는 아동을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홍순준 목사 등이 여름 아동 성경학교를 개최하여 학생 130명이 한글·창가·동화·산술·성경을 배웠다. 퇴촌면 이석리 역시 예배당에서는 야학을 개시하고 학년초과자와 무산아동 남녀 50명을 모아 문맹 퇴치에 노력하였다.⁷⁵⁾ 남한산성에 있는 농민야학은 열 살 전후의 남녀어린이 50여 명의 아동을 교육하였는데, 노동공조회관을 빌려 학예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날 참석한 부모들과 미신 타파 좌담회를 개최하였다.⁷⁶⁾

4. 학생·농민·노동운동

1) 학생운동

광주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 광주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을 들 수 있다. 1921년 8월 4학년 황추호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교실 출입구를 나설 때, 마침 그의 연필이 교실 마루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이를 찾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그곳 여자부 교실을 신축하고 있던 일본인 목수 오케구치桶口與市가 일본말로 욕을 하며 기와장과 망치로 사정없이 구타하여 실신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4학년 학생들이 사건 현장의 주위에 모여들자, 일본인 목수는 다시 삼을 들고 마구 휘둘러 무고한 학생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한바탕 큰 소동으로 발전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렇게 심하게 구타하고 소동을 일으킨 일본인 목수를 일본 경찰이 훈계만 하고 그냥 돌려보낸 데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일개 목수가 무리하게 학생을 구타하고도 무사히 방면됨은 동교 직원의 교육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그 목수에 대해 상당한

73) 『조선일보』1923년 9월 8일, 「광선의숙의 유망」.

74) 『조선일보』1929년 2월 5일, 「광주분원 부인야학 개시」.

75) 『동아일보』1930년 12월 13일, 「야학에 10월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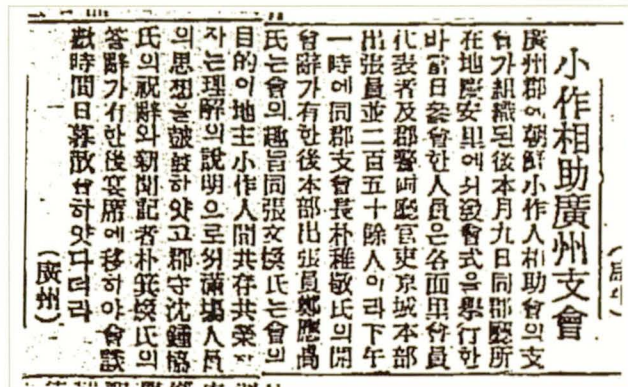
76) 『동아일보』1933년 2월 16일, 「지방논단-남한농민야학생 학예회」.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동맹휴학을 단행하겠다 함으로써 결국 8월 29일 무더기 휴학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요컨대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주장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등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은 오히려 황추호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 하여 일본인 목수를 두둔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자,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학부형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선후책을 강구하여, 결국 다시 일본인 목수를 고소하여 재수감시키는 쪽으로 시도함으로써 어느 정도 학생들의 불만은 해소될 수 있었다.

2) 농민운동

조선소작인상조회는 친일지주들이 설립한 것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소작인상조회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광주지역은 1922년에 경안리에서 광주지회에서 발회식을 거행하였다. 소작인상조회 발회식에는 본부에서 정응설, 장문환 등이 출장을 와서 취지와 목적을 알리는 한편 지주와 소작인의 공존공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작상조 광주지회 관련 기사(『동아일보』 1922년 3월 17일)

1923년 8월에는 광주제2지회가 송파리에 조직되었다.⁷⁷⁾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소작료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오펜면 양벌리에서는 그 일대의 전답을 가지고 있던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소작료 문제가 벌어졌다.⁷⁸⁾ 동부면 산곡리에서는 지주가 소작권을 전부 박탈하자 소작인상조회 광주지회에 탄원하여 환부하는 사건도 있었다.⁷⁹⁾

77) 『동아일보』 1922년 3월 17일, 「소작상조 광주지회」; 『조선일보』 1923년 9월 6일, 「상조회 지회설립」.

78) 『조선일보』 1923년 7월 2일, 「소작문제 又復不平」.

79) 『조선일보』 1923년 7월 13일, 「소작분쟁의 해결」.

3) 노동운동

경기도지역의 노동운동은 통일전선에 입각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의 건설과 함께 아울러 지식인·학생층으로부터 벗어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남한산 구락부는 1918년경 창립되어 1927년 현재 회원이 300여 명에 달하였다.

1930년에 산성리에서 창립한 남한산노동공조회는 순전하게 농민만을 망라하여 성립된 무산계급의 노동단체로, 창립에는 석혜환·박준호 등이 참여하였다. 무산노동자를 위하여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였고, 때때로 강연과 야학을 개최하여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 무산자에게 미치는 공적이 적지 않았다.⁸⁰⁾ 이들은 노동자·농민을 의식화시키다가 일제에 적발되자 지하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광주노동조합을 만들어 공개활동을 벌이다가 또다시 일제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그 후 1934년 12월 광주공산당협의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노동야학 등을 통하여 투쟁역량을 확대해 나갔다.

5. 신간회 광주지회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 움직임은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서 ‘민족단일당론’이 대세를 장악하게 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조선일보』 1927년 7월 10일자에는 광주군에서 “유지 제씨의 발기로 조선 민중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조선 민족단일당인 신간회 지회를 설치하고자 임시사무소를 송파중앙청년회 내에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지회 설립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8월 14일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장경사(長慶寺)에 20여 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8월 24일 남한노동공조회관에서 지회 설립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위원으로 천도교 구파 지도자 한순희와 박태원, 남한노동공조회의 석혜환을 비롯하여 동아일보 광주지국 기자 유인목⁸¹⁾, 송파체육장려회 회장 김동식⁸²⁾ 등 12명을 선정하였다.

같은 날 오후 남한노동공조회관에서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임시의장 한순희의 사회로 회원 점명과 경과보고를 거쳐 강령과 규약이 낭독되었다. 이어 임원 선거에 들

80) 『동아일보』 1927년 7월 1일, 「순회탐방(359)」.

81) 『동아일보』 1927년 6월 25일.

82) 『조선일보』 1927년 7월 10일, 「광주군 송파에 체육회 창립」.

어가 전형위원 8명을 선거하여 임원을 선출한 뒤 지회를 경안면에 두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1927년 12월 15일 광주지회 정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지회장 한순희의 사회로 회원 점명, 회록 낭독, 각부 보고, 의안 토의, 임원개선, 그리고 신간회 본부에서 파견된 정현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진행 중에 선전문과 일부 결의안은 경찰에 의해 금지당했다.



신간회 광주지회 2주년 기념식(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민족문화사, 1993, 138쪽)

1927년 12월 29일 신간회 광주지회 회관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이 결성되었다. 임시의장은 박기환, 서기는 변중희가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박기환·김홍제·변중희 등 전형위원 3명의 전형으로 연제홍(延濟鴻)이 상무위원에 피선되었으며, 광주의 중국교민에게 한순희와 박기환을 교섭위원으로 파송하여 동맹의 취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광주의 중국교민들로 하여금 중국정부 또는 총영사에게 재만 조선인들을 보호해주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교섭토록 하였다.

1928년 12월 27일 제3회 광주지회 정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임시의장 한순희, 서기 변중희의 진행으로 문맹퇴치, 소비조합 설치, 미신타파, 회원모집, 회비 등을 포함하는 의안을 논의하였다. 제3회 정기대회에서 논의된 소비조합 설치 문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즉, 1929년 1월경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들은 1원씩 출자해서 낙생면 금곡리에 소비조합을 조직하였다.⁸³⁾

한편 1929년 2월 원산총파업이 발생하자 신간회 광주지회 간부들은 원산파업단에게 격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경찰서에서는 회장 석혜환, 총무간사 변중희를 검거하여 각각 10일간 구류에 처하였다.⁸⁴⁾

1929년 3월 신간회 본부 임시 간사회에서는 정기대회에서 개정하려던 규약초안을 각 지회에 배부하여 수정의견을 종합하기로 하였다. 이후 각 지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미 1928년 초부터 각지의 신간회 지회에서 회장제를 집행위원장제로 변경하는

83) 『조선일보』 1929년 1월 31일, 「광주 금곡에 소비조합 조직」.

84) 『조선일보』 1929년 2월 27일, 「격문관개로 광주신간간부 또 한명이 구류」; 『조선일보』 1929년 3월 5일, 「신간광주지회장 석혜환씨 석방, 지난 이일에」.

사례가 빈번했으나, 신간회 광주지회의 경우 1929년 2월까지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회장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1929년 8월 24일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 제2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기념식은 집행위원장 유인목의 사회로 진행되었다.⁸⁵⁾ 한순회의 기념사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온 축문이 낭독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열렬한 축사가 있은 뒤 만세삼창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곧이어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 승인, 경기도지회연합대회 파송대표 선출, 집행위원장 사임 등을 논의하였다.⁸⁶⁾ 집행위원장 사임의 건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인목이 집행위원장으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회연합대회에 파견할 대표를 선출한 것은 북대표대회에서 개정된 규약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회연합회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광주지회는 1929년 10월 20일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간회 본부에서 전남 광주지회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해 11월 20일 집행위원회에서는 정기대회 소집문제와 회비징수, 회원모집, 신간지新幹誌 광고모집, 광주수리조합 문제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1931년 5월 15일 경성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이틀로 예정된 신간회 제2회 전체대회가 개최되었다. 신간회 고립대회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대회이자 해소대회였다. 대회에서는 경향 각지의 해소론 주창자들이 최고 집행부를 장악하였다. 대회 이틀째인 5월 16일 중앙간부들이 개선되었다. 39명의 중앙집행위원이 선정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광주지회의 유인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회에는 신간회 해소안이 제출되었다. 경찰의 제지로 찬반토의는 금지되었으나 표결 결과 찬성 43, 반대 3, 기권 30으로 신간회 해소안이 가결되었다. 해소론자들은 신간회 해체가 아닌 해소운동을 통한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해소 이후 일제에 의해 일체의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결국 해소대회는 해체대회가 되고 말았다.⁸⁷⁾

6. 광주공산당협의회

1931년 신간회가 해산된 이후 광주지역의 사회운동 세력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사

85) 광주지회 제2대 지회장 석혜환이 원산파업단 격문 발송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이후 유인목이 광주지회의 대표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86) 『조선일보』 1929년 8월 29일, 「신간광주지회 창립2주기념」.

87) 김기림, 「해소가결전후의 신간회, 5월 15일 於京城全體大會光景」, 『삼천리』 제16호, 1931, 13~16쪽;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528~534쪽.

회단체에 대한 엄하고 모진 일제의 탄압으로 회원들은 점차 동력을 잃었다. 공개단체를 이용한 합법운동 방식에서 비밀단체를 통한 비합법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 중심에는 중부면 산성리 출신 석혜환이 있었다. 남한노동공조회와 광주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개영역에서의 합법운동이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활동의 자유를 잃게 되자 석혜환을 비롯한 두 단체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활동방침을 찾아 나섰다.

1935년 1월 31일 그의 집에 정영배·김홍중·최청룡·김귀용 등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공개단체를 통한 활동은 경찰의 탄압을 받아 활동이 곤란하므로 지하운동을 하기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무산대중에게 계급의식 자각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비밀결사는 2월 6일 중부면 산성리 김홍중의 집에 모여 결성하기로 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먼저 남한노동공조회와 광주협동조합 회원 가운데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의지가 강고한 자들에 대한 전형에 나섰다.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통하여 동의자들을 한둘 씩 확보하였다.

1935년 4월 5일 오전 10시 경성부 계동 소재 중앙고등보통학교 뒷산 약수터에서 당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석혜환이 개회를 선언하고 정영배가 서약문을 낭독한 뒤 기관지를 배포, 낭독하였다. 정영배는 당원들이 당 기관지를 충분히 연구하여 의식향상과 실천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당원들의 동의하에 매월 기관지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경기도경찰부에서는 1935년 중에 남한노동공조회와 광주협동조합이 해체되자 그 이면에는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체된 뒤에도 계속해서 회원들의 동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불로주장 노량진지점 서기로 있던 이양재가 정영배와 주고받은 편지가 영등포경찰서에 포착되었다.

1935년 7월 불로주장 경성본점에서 노량진지점 서기로 부임한 이양재가 항상 좌익서적을 탐독하고 때때로 사회운동자(반일운동세력, 일본경찰은 ‘불량도배’라고 했음)와 교류하고 있음을 주시해왔다.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발생하였다. 1935년 12월 29일 밤 이양재는 서울 교남동 용일주장龍一酒場 배달부 추두호秋斗鎬로부터 당원 구승회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구승회가 체포된 이유는 당협의회 문제가 아니라 조안득이 우가키宇垣 조선총독 암살 계획에 연계되었기 때문이었다.⁸⁸⁾

이양재는 처음에는 동지들에게 급히 알리지 않으면 발각될 것이라는 생각에, 정영배에게 “구승회가 개에게 물렸다. 주의하라”는 전문을 보내려 했다가 전달 방식을 편지로 바꿨다. 이양재는 중부면 산성리에 거주하는 정영배에게 ‘동지 구승회가 용산서에 체포되었으므로 머지

88) 京城龍山警察署長, 「(京龍高秘 第11151號) 朝鮮總督暗殺未遂事件檢舉ニ關スル件」, 『警察情報 寫(副本) (昭和 11年)』, 1936년 1월 24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않아 그쪽에도 경찰의 손이 뻗칠지 모르니 중요 서류를 정리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⁸⁹⁾

다음 날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양재를 동행, 취조하였으나 단지 문안인사 통신일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12월 31일 편지를 수신한 정영배는 즉시 석혜환과 논의한 뒤 1936년 1월 초하루 자전거를 타고 구천면과 서부면의 당원 동지들에게 통지하고, 서울에 출장 중인 구본홍에게 급보하였으며, 안양으로 가서 김홍종과 이순웅에게 기관지를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소각토록 할 것과 신변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다음 날 광주로 돌아온 정영배는 석혜환과 함께 당원이 연구하고 있는 좌익서적과 기관지들을 전부 소각하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석혜환은 1월 6일 서울로 올라가 경성부 관철동 경신주장에 머물던 구본홍에게 소식을 전하여 곧바로 고양, 대전, 논산 등지로 몸을 피하였다.

경찰은 1936년 1월 7일 광주에서 정영배를 영등포경찰서로 동행함과 동시에 가택을 수색하였다. 정영배를 비롯한 당협의회 당원들의 집에서는 당기관지와 기타 좌익서적 10여 권이 발견되었다. 결국 광주공산당협의회에 대한 전모가 폭로되고 관련자는 모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⁹⁰⁾

제6절 8·15해방과 6·25전쟁

1. 8·15해방

1) 해방과 군정 실시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연합국의 승리의 결과이자 한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끈질기게 독립투쟁을 전개한 결

89) 永登浦警察署長, 「(永警高秘 第1124號) 秘密結社廣州共產黨協議會檢舉送局ニ關スル件」, 『警察情報綴 拱(昭和11年)』, 1936년 3월 9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90) 京畿道警察部長, 「(京高特秘 第731號) 秘密結社廣州共產黨協議會事件檢舉ニ關スル件」, 『警察情報綴 拱 昭和11年』, 1936년 4월 9일.

과였다.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잔재의 청산, 치안확보, 토지개혁, 공장 재가동 등 과제는 산적했지만,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점령을 제안했고, 이것을 소련이 받아들임으로써 분할선이 확정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38도선 분할점령은 분단체제의 첫 출발이었고, 강대국에 의한 국토분단이었다. 또한 38선은 한반도가 미·소 양 진영의 협력과 대립, 냉전과 열전의 장이 되어감에 따라 동아시아 냉전의 '경계선'이 되어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이해와 요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은 38선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할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했다.

통행제한에 따른 생활권의 강제 분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인위적인 분리와 선택이 강제되었다. 북한이 남한지역에 대한 단전단수를 단행하자 광주를 비롯한 부천·김포·고양·평택 등 전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식량생산이 감소했다.⁹¹⁾

당초 미 태평양육군사령부는 미 제24군단을 포함한 제10군을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점령계획은 3단계로 계획되어 제1단계로 서울과 인천지역을 점령하고, 제2단계는 부산지역 점령, 제3단계는 군산·전주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실행 직전 제10군의 한반도 점령계획이 취소되고 미 제24군단만 점령임무를 맡게 되었다.⁹²⁾ 미 제24군단의 남한점령은 크게 세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진주 직후 장교들로 구성된 정찰팀이 중요 도시 등에 체류하며 미군 진주를 알리고 상황을 정찰하는 수준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대규모의 전술부대가 시·군 단위로 점령을 시작했다. 전술부대의 임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지방의 사정을 군정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었다.

경기지역은 미 제7사단이 관할하게 되었다. 군정 실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요원의 확보였다. 미 제24군단은 군정단과 군정중대를 요청했으나 한국 도착일자가 불확실하자 1945년 8월 22일 3개의 임시 군정팀을 조직했다. 제1팀은 제7사단과 동행하고, 제2팀은 인천, 제3팀은 서울을 담당하도록 예정되었다. 3개의 군정팀은 한국 상륙 당시 장교 36명과 사병 92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정요원들은 전술군과 달리 기본적인 점령정책과 군정기법을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사전 준비나 지식이 부족했고,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파악도 부족했다.

그러나 군정요원들은 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 보편 목적만은 “예민하고 날카롭게 인식”하고

91) 『조선일보』 1948년 6월 2일.

92) 한반도 점령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part III, Chapter I “Creating the Machinery of Military Government”.

있었다.⁹³⁾ 군정을 담당할 군정요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컸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익만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었을 때 각 지역단위에서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1946년 1월 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시·군 군정(군정중대, 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했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했다. 군정중대는 시·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했다.⁹⁴⁾

경기도에서는 1945년 10월 2일 도지사와 각 부장, 각 군수가 거의 전원 면직되었다. 같은 날 경기도지사에 마이어즈(William B. Myers) 육군소령이 임명되었고, 5개 부서장과 17개 군 군수, 6개 서 서무서장 등을 포함해 45명의 한국인이 임명되었다.⁹⁵⁾ 군정부대는 통제권을 장악한 뒤 한국인 관료를 충원해 이들에게 업무를 이양하는 방식으로 군정을 확립해갔다. 광주 군을 비롯한 군 단위에는 미군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된 군정파견대가 배치되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2) 광주지역 정치·사회 조직과 활동

광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우익청년단체는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동맹이었다. 광주군지부는 1946년 5월 12일 결성되었다. 16개 면 대표와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했고, 회장에는 박기환이 선출되었다. 특히 광주 출신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장 자격으로 중국에서 돌아온 신익희가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⁹⁶⁾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동맹 광주군지부가 결성 될 무렵은 조직 확장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대한독립청년단은 1946년 10월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원들을 출동시켜 사태 진압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1947년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반탁시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47년 7월 19일에는 대한독립청년단 경기도 광주지단이 결성되었다. 단장에는 이한중, 부단장에는 김교진·유근세 등이 임명되었다.⁹⁷⁾

93)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94-95쪽.

94) 정병준, 「주한 미24군단의 대한 군정계획과 군정중대·군정단」, 『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 문서』, 국사편찬위원회, 2000, 10쪽.

95) 『매일신보』 1945년 10월 5일.

96) 『대동신문』 1946년 5월 15일.

97) 건국청년운동협의회총본부,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1021쪽.

대동청년단은 1947년 9월 상해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이 당시 32개의 청년단체들을 통합하여 결성한 청년단체이다. 광주지단이 결성되어 있었고, 1946년 광주경찰서 습격사건 때 광주군으로 출동해 활동한 바 있다.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단체 통합조직으로 대한청년단이 1948년 12월 19일 결성되었다.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던 국민회청년단, 대한독립청년단,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서북청년회, 청년조선총동맹 등 규모면에서나 활동력에서 앞서있던 여섯 개 청년단체들이 청년단체 통합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었다.⁹⁸⁾ 이에 따라 광주군에서는 기존 청년단체의 지부조직들을 해산하고 대한청년단 광주군단으로 재편하였다. 광주군단 단장에 박재덕, 부단장에 김세영·박경득이 선출되었다.⁹⁹⁾

3) 미곡수집 분쟁과 광주경찰서 습격사건

해방 이후 광주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건은 미군정의 미곡수집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사건과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이었다. 지주와 소작인 분쟁사건이 미군정의 정책실패에 따른 사건이었다면,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은 좌익이 주도한 사건으로 냉전체제의 형성에 따른 미·소간의 대립, 좌우익간의 대립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1) 미곡수집 분쟁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일제 말기 실시된 미곡공출정책을 폐지하고 자유시장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해방 후 한국의 경제는 식량 부족과 물가 급등 등으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미군정은 한국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인 미곡공출제를 폐지함으로써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시킬 계기로 삼고자 했다. 10월 20일에는 각종 강제통제기구가 철폐되고, 자유경제원칙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10월 25일에는 통제해제와 물품의 자유판매를 허가하는 조치가 잇달았다. 이 같은 조치로 미곡의 자유반입이 이루어지고 자유시장을 통해 매매가 활성화되면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98) 하유식, 「이승만 정권 초기 정치기반 연구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3, 부경역사연구소, 1997, 210쪽.

99) 건국청년운동협의회총본부,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1491쪽.

그러나 예상과 달리 쌀값은 점점 오르기 시작했다. 소비재가 부족해 화폐가치가 거의 없고, 매입된 쌀이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우려, 가격폭등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농민들이 수매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¹⁰⁰⁾ 식량 매입 대행기관을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미곡을 매입해 정부 보유미를 비축하려던 미군정의 계획도 쌀값 폭등으로 실패했다. 미군정은 도시민의 식량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1946년 1월 25일 「미곡수집령」을 공포하고 식량 강제수집을 단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광주군 사례를 보면, 미군정 식량정책과 시행 과정의 문제점이 잘 노출되었다. 1946년 1월 대지주였던 석백균石白均은 쌀값이 점점 폭등하자 소작료 물납을 강요했다. 마름을 통해 되찾은 도마리 소재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물납으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소작농이 금납을 완강하게 주장하며 반발하자 그는 벼 한가마당 175원의 소작료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월 25일 소작인 3명이 대표로 소작료로 합의한 액수를 지불했다. 그런데 태도를 바뀐 오전에 소작료를 받고, 오후에 200원을 더 요구했다. 소작인이 약속 위반이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2월 6일 농민조합 대표 안호성과 최성린이 석백균을 방문해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오히려 소작료와 미곡수집 불응이 농민조합 책동이라고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군청정은 2월 13일과 14일 광주군 생필품영단 직원과 무장경관대를 출동시켜 소작인이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나락 120가마까지 강제로 수집미로 징수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 최성남 외 4명을 검거했다. 2월 19일에는 무장경관 약 15명이 마을에 출동하여 “민중을 선동하고 군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같은 면 동광리 거주 안호성 등 농민조합원 가택을 수색하여 회의록을 비롯한 서류를 압수하고 마을주민을 무차별 연행해갔다.¹⁰¹⁾

지주나 부농이 미곡 강제수집을 이용해 소작인에게 현물지대나 지대인상, 세금대납 등을 요구하고, 미군과 경찰의 보호를 받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소작인의 경우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곡 강제수집정책과 미가 폭등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해야 할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주의 편을 드는 경우도 많았다.

일반 농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농민과 소작농들의 미군정에 대한 비판과 지주들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갔고, 토지개혁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갔다. 이 같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 경기도에서는 1946년 12월 1일자로 도내 미곡수집 성과를 발표했다. 포천군

100) 『서울신문』 1945년 12월 12일.

101) 『조선인민보』 1946년 3월 7일.

은 내년 1월 말까지 수집할 할당량의 100% 수집을 완료했고, 수원·광주·가평 등 3개 군도 80%를 달성했다고 발표되었다. 식량 강제공출은 미군정의 일대 실책으로 평가될 정도였다. 할당량의 불공평, 공정미가의 부당성, 보상물자 배급계획의 실패 등이 그 원인이 되었고, 여기에 미군정의 행정력도 미치지 못한 때문이었다.¹⁰²⁾ 이처럼 수집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광주군의 수집실적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보다 월등했다는 것은 행정력의 지원이 강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석백군과 소작인 사이의 분쟁에 경찰이 동원되어 관련자들을 검거해간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2) 광주경찰서 습격사건

해방 후 광주군에서 발생한 대형사건은 1946년 10월에 발생한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이다.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항쟁은 10월 3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5일에는 인천, 10월 20일에는 개성·연안·백천·장단·광주 등지로 파급되었다. 군중봉기는 주로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 청년단체들이 주도하였고, 경찰과 우익단체가 연대해 제압하였다.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은 당시 중대면 송파리의 공산당원 정극모가 정상교·윤재달·박동규·정태원·정길룡·최용옥·서재철 등과 공모해 10월 항쟁에 호응해 경찰서 습격을 결의한데서 비롯되었다. 거사 당일인 10월 20일 정극모의 지휘하에 곤봉과 낫 등으로 무장하고 최용옥 외 10명은 정문으로, 박동규 외 6명은 후문으로, 윤재원 외 6명은 남문으로 돌입했다. 이들은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기물을 파괴했다. 이때 정상교는 서재철·정양석 등 5명과 더불어 경찰서 후문에 휘발유를 뿌려 경찰서를 전소시키고 도주했다.¹⁰³⁾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의 이면 주모자는 이원갑으로 알려졌다. 그는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고문으로 옥사한 이운재의 아들이었다.¹⁰⁴⁾ 사건 발생 직후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은 10월 21일 경기도 내 소요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광주와 연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좌익계통의 민청원들의 계획적 행동으로, 대구사건과 약간 성질과 행동이 다른 것은 무기 탈취와 경찰서 파괴 등에 목적이 있고, 행동도 소수 편성으로 주재소 등을 노린 것으로 보아 게릴라전을 연출하고 있다’며 치안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발표했다.¹⁰⁵⁾

102) 『동아일보』 1948년 8월 11일.

103) 대검찰청 수사국, 『좌익사건실록』 1, 1965, 272~273쪽.

104) 건국청년운동협의회총본부,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424쪽.

105) 『동아일보』 1946년 10월 22일.

한편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의 소식을 접한 대한독립청년단 본부에서는 종로와 중부지단에 서 정예요원 150명을 선발, 특별기동대를 편성해 3대의 트럭에 분승, 서병지 훈련부장의 인솔 하에 출동했다. 정오에 도착한 특별기동대는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좌익계열의 농민회, 민청 원, 여맹원 등을 색출 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다. 광주경찰서 습격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체 포되었다.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의 주모자였던 정상교는 사건 발생 후 도피생활을 하다 6·25 전쟁 발발 후 양평군 양수리 교량복구대장으로 부역하면서, 광주군 경안리 거주 정태명 외 9 명의 우익 인사들을 밀고해 체포케 했다. 그 후 다시 도주하여 이천·음성 등지를 전전하다 1951년 10월 18일 충북 음성군 신현복 집에 은거 중 체포되었다. 1952년 2월 29일 서울지방법 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했다.¹⁰⁶⁾ 광주경찰서 동부지서를 습격했던 유인수도 사건 발생 후 도주했으나 1947년 9월 19일 서울시 북창동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¹⁰⁷⁾ 이로써 1946년 10월에 발생한 광주경찰서와 동부지서 습격사건은 일단락되었다.

2. 6·25전쟁

1) 전쟁의 발발과 북한군의 광주 점령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서해 웅진반도에서부터 동해안 기사문리까지 38도선 전역 에서 국군의 방어지역을 향해 30분간 쉴 새 없이 포격을 가한 후 기습적인 전면공격을 시작했다. 북한군은 소련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일명 ‘선제타격계획’에 따라 1단계로 서울지역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고 2단계로 전과를 확대하여 3단계로 남해안까지 진출해 잔적을 완전히 소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¹⁰⁸⁾ 북한군은 서울을 속전속결로 점령하여 서울 북 쪽에 있는 국군과 남쪽의 중원군을 분리, 섬멸하고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남한 전역을 점령 한다는 목표를 세워 이들 세 주요 접근로에 병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¹⁰⁹⁾ 치밀한 계획하에 이 루어진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선 상황이 화급을 다투고 있던 26일 오전까지도 정부와 군의 수뇌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

106) 대검찰청 수사국, 『좌익사건실록』 1, 1965, 272~273쪽.

107) 『현대일보』 1947년 9월 26일.

1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133~139쪽.

109)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 제1권, 행림출판사, 2000, 178~179쪽.

고 있었다. 이날 중앙청에서 열린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성모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채병덕 총참모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울을 사수할 것이며, 나아가 3~5일 안에 평양까지 진격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6일 오후 1시경 의정부가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으며,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새벽에 서울을 탈출했다. 28일 밤 1시에 미아리고개를 통과한 북한군 전차가 서울 시내에 진입하고, 오전 11시 30분에는 서울시내 전역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 중앙청에는 인공기가 게양되었다.¹¹⁰⁾

한편 육군총참모장은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교와 광진교를 폭파할 것을 지시해 교량을 건너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교량의 폭파로 수도권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도로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서 한강 이북에 배치된 국군 4만 4,000명의 병력이 분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국군과 대통령을 믿고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고, 피난할 시기를 놓친 100만 명이 90일 동안 북한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교가 폭파되자, 육군본부는 한강선 방어를 위해 임시로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했다. 국군 작전지휘부인 육군본부는 6월 28일 새벽 용산에서 수원 농업시험장으로 이동해 있었다. 수원의 육군본부는 폭 300~1,200m 수심 3m에 달하는 한강의 자연조건을 이용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새로 편성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에는 병력이 없었다. 결국 삼삼오오 도하해 오는 철수병력을 재편성해 한강선에 재배치함으로써 6월 29일 간신히 한강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6월 30일 밤부터 한강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치열한 공격을 시작해 결국 7월 1일 전차와 병력의 한강 도하를 성공시켰다. 북한군 전차의 한강 도하로 인해 한강방어선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자, 국군은 7월 3일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¹¹¹⁾ 이 무렵 춘천 방면에서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육군본부는 제2사단장이었던 이형근 준장을 광주-이천지역에 급파하였다. 현지에 도착하여 산재해 있던 국군 및 경찰병력으로 혼성부대를 편성하였다. 이른바 ‘이천지구전투사령부’였다. 이천지구전투사령부는 대부분 북한군의 파상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 낙오병과 경찰병력으로 구성되었다. 예하에는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이천지역에 배치된 제6사단 예하의 제19연대와 증파된 제2연대 제2대대가 소속되어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 사령부는 약 3,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연대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는 400~500명의 기마경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6사단 제19연대는 예하의 각 대대를 곤지암리에서 이천 사이에 동에서 서로 배치하였는

110) 최용호·김병륜, 『그때 그날』, 삼우사, 2003, 23쪽.

11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148~202쪽.

데, 제1대대가 이천 외곽에, 제2대대가 정개산 일원에, 제3대대가 곤지암리 남쪽 194고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각 대대가 점령한 진지는 곤지암리-이천, 곤지암리-김량장리를 연하는 도로의 감제가 가능한 고지였다.¹¹²⁾ 후퇴하는 국군을 추격해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30일 오전 10시경 하번천리와 경안리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였다. 이천지구사령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7월 1일 아침에 595고지 부근에서 북한군 제2사단 제17연대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7월 2일 오전 7시경에는 곤지암리 194고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3대대 예하 제10중대가 북한군의 보급부대를 공격해 전멸시켰다. 당시 제10중대는 고지 아래의 사거리에서 중대 규모의 보급부대로 보이는 북한군이 우마차에 보급품을 가득 싣고 경계병도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중대장 김두일 대위는 2개 소대로 이들을 포위한 후 예상되는 도주로에 병력을 집중배치하고 사격개시 명령을 하달하였다. 피아간에는 치열한 총격전이 전개되었고, 결국 적을 전멸시켰다. 이 전투 이후 국군은 광주지역을 벗어나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7월 4일 안성 방면으로 철수하였다.¹¹³⁾ 개전 8일 만인 7월 3일부터 광주지역은 북한군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광주는 북한이 남한 점령지역에서 추진한 ‘당 및 행정기구 재건사업’의 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다.

2) 유엔군의 광주 수복

(1) 제1차 광주 수복과 중공군의 재점령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유엔군은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하였다. 9월 28일 서울 탈환으로 전황이 역전되면서 10월 1일에는 드디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여 순식간에 한·중 국경 부근까지 진출했다. 광주는 북한군이 점령한지 약 2개월 보름 만에 다시 국군에 의해 수복되었다. 폐허가 되어 버린 집과 농토를 복구하는 작업은 물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주민간의 적대감이었다.

실제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북한군의 퇴각과 함께 마을에서 사라졌지만 가족이나 친척 일부가 마을에 남게 되어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앙금이 남아

1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2006, 445~447쪽.

1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2006, 448~449쪽.

있었다. 즉 북한군 치하에서 벗어난 광주군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복구’와 ‘주민들 간의 양금 해소’라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숙제뿐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의 원조’와 ‘시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정책과 전황의 급격한 변화로 광주군민들에게는 구호원조도,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한편 전쟁 초기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 온 중공군이 10월 19일 대규모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으며, 유엔군은 중공군의 반격에 직면하여 전면적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은 북한·중국·소련 대 남한·미국·유엔군의 대결을 하는 동·서 진영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12월 4일 평양철수를 결정하고, 15일에는 38선 이남으로 총퇴각을 명령하였다. 1951년 1월 공산군의 신정공세에 직면하자, 유엔군사령부는 서울 포기를 결정하고 평택-장호원-삼척을 연하는 ‘37도 방어선’ 구축을 명령하였다. 이른바 ‘1·4후퇴’가 시작된 것이다.

이 무렵 중공군은 광주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동남부 방면으로 중공군 제38·39·40군을 투입하였다. 광주에는 1월 6일 한강을 건너온 제40군 제120사단 제360연대가 중공군으로서는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경안리를 경유해 김량장리 방면으로 남하하였고, 후속으로 제38군 제112사단이 1월 8일부터 경안리지구의 경계를 담당하게 되었다.¹¹⁴⁾

중공군 제112사단이 광주에 주둔한 1월 8일은 조중연합사령관 평터화이(彭德懷)가 전군에 전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날이기도 했다. 평터화이는 식량보급의 문제, 혹심한 추위로 인한 낙오병의 증가, 지나친 남진으로 다시 한 번 유엔군에게 상륙작전을 허용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정세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진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¹¹⁵⁾ 갑자기 전선에서 사라진 적은 오히려 유엔군에게 불가사의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했던 중공군의 모습은 전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유엔군은 무작정 중공군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당시 제8군사령관이던 리지웨이 장군은 정찰부대의 규모를 확대해 증강된 1개 연대 규모의 위력수색(威力搜索)으로 중공군의 배치와 규모, 앞으로의 의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미 제1군단에 지시했다.

11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87~288, 294쪽.

115) 박동찬, 『한국전쟁과 중국의 참전 결정』, 『전사』 2, 1999, 국방군사연구소, 140쪽.

(2) 곤지암리 부근 전투

유엔군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지역의 확보는 여주에서 남한강을 도하해 양평으로 진출하고, 또 분원리에서 현 남양주시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탈환해야 할 목표였다. 미 제9군단은 곤지암리를 중심으로 서북쪽으로는 미 제1기갑사단을, 동남쪽으로는 미 제24사단을 각각 투입해 한강 남안까지 진출하도록 계획하였다. 미 제1기갑사단은 1월 23일에 제9군단으로부터 “25일 여명黎明을 기하여 이천-김량장리 선에서 북쪽으로 공격해 일련의 통제선에 따라 한강 남안까지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단은 이를 위하여 제7기갑연대와 제8기갑연대를 병진시켜 통제선을 점령한 후 예비인 제5기갑연대를 투입해 경안리-무갑산 횡축선橫軸線을 거쳐 계속 한강선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광주지역에 대한 공격은 제7기갑연대가 담당하였다. 제7기갑연대장 해리스 대령은 제2대대를 오천리-경안리 축선을 따라 공격하게 하고, 연대에 배속된 그리스대대를 이천-곤지암리-경안리 도로 축선을 따라 좌우측 고지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를 그리스대대의 우측에서 서북방으로 공격하도록 하고, 예비인 제1대대를 공격부대들이 통제선에 도달하면 제2대대를 초월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제7기갑연대의 공격 선봉에 나선 그리스대대는 25일 이천-곤지암-경안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다음날 정개산으로 진출하였다. 그리스대대는 소정리 부근에서 중공군의 잠복병으로부터 근거리 기습사격을 받아 병사 4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그 후 그리스대대는 사단의 전투지경선 조정에 따라 1월 28일 좌측에 인접한 관리冠里로 이동하여 곤지암 공격의 발판이 되는 양각산 북쪽의 381고지와 307고지, 그리고 258고지를 점령하였다.¹¹⁶⁾

그리스대대는 2월 6일 오전 8시에 제7기갑연대의 명령을 받고 오후 5시 30분까지 곤지암리로 전진, 대석리에 집결하였다. 집결할 당시 미 제7기갑연대 제3대대가 대석리 북쪽 2km지점의 402고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제7기갑연대장은 그리스대대에게 2월 8일 여명을 기하여 제3대대를 초월, 402고지 북쪽의 무명고지와 상동리 부근의 489고지를 공격 점령한 후 서북방으로 우회해 무갑산 공격에 참가할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402고지-489고지 일대는 실촌면과 초월면의 접경지로서 남북으로 뻗은 능선의 폭이 좁고 가파른 지대였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다. 지형과 기상악화로 공격 첫날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그리스대대는 9일 오전부터 공격을 재개해 수차례의 고지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벌인 끝에 10일 오후 1시경에 무명고지 탈환에 성공하였다.

116) 국가보훈처, 『아테네의 후예들: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 2006, 71~74쪽.

1951년 2월 10일에 이르러 곤지암리 전투는 미 제7기갑연대 제2대대가 초월면 용수리 부근의 202고지를, 그리스대대가 대석리 402고지 북쪽의 무명고지를 각각 점령하고, 연대 우측에서 공격하던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가 상열미리-장심리 선에 진출함으로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무렵 제1기갑사단은 군단으로부터 여주 방면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편 제7기갑연대는 무갑산 동북쪽 산악지대에서 중공군의 저항이 계속됨에 따라 15일 오전까지 전투를 계속하였다. 제7기갑연대는 제2대대가 무갑산 동북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리스대대가 14일 오후 489고지를 점령한 후 서쪽 초월면 신월리 방면에서 무갑산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2월 15일 정오경 제7기갑연대는 무갑산을 완전히 점령하고, 오후에 미 제25사단 제27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사단 예비로 전환되어 용수리로 이동하였다.¹¹⁷⁾

(3) 광주 동부지역 전투

미 제1기갑사단의 우측에서 공격하던 미 제24사단은 2월 11일 국군 제19연대에게 우선 장심리의 409고지와 상열미리의 514고지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19연대장은 409고지 탈환공격에 제3대대를, 514고지 탈환공격에 제1대대를 각각 투입하였다. 이날 오후 1시 15분에 제3대대는 제9중대와 제11중대가 409고지를 탈환했지만 제1대대는 제1중대와 제3중대가 514고지 정상 부근에 진지를 구축한 중공군과 백병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국군 제19연대가 409고지와 514고지 탈환을 위해 공격하는 동안 유엔공군은 전폭기들을 출격시켜 국군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이날 유엔공군의 전폭기 7대가 514고지 정상 부근에 폭격을 가해 중공군 약 650명을 사살하고, 3개의 기관총 진지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전폭기 4대가 514고지 정상에서 연결된 능선 일대에 폭격을 가해 중공군 75명을 사살하고 박격포들을 파괴하였다. 전폭기들의 공격 외에도 B-26폭격기들이 409고지에서 서미골에 이르는 지역과 양자봉 부근에 집중적인 폭격을 실시하기도 했다.¹¹⁸⁾

2월 11일 514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국군 제19연대는 12일 514고지를 공격하는 제1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동리 489고지의 제2대대를 514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오전 7시에 공격을 개시해 오후 8시 45분에 514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6사단 전투상보에 의하면, 2월 11~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409고지와 514고지 전투에서 제19연대는 671명의 중공군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100여 정의 소총과 탄약 2,500발 등을

1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유엔군 참전편』 제10권, 1979, 586쪽.

118) 24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Staff Section G-3(1951, 2, 11), RG407, Box No. 3551.

노획하였다.¹¹⁹⁾이 전투 결과 국군 제19연대는 중열미 401고지 동쪽 기슭-오향리 356고지(401고지 동북방 2km)-열미리 563고지(356고지 동북방 1.7km)-356고지 정상에서 북쪽 500m 능선-354고지(남이개 남쪽 고지) 서쪽 기슭에 이르는 진지편성을 갖추게 되었다.

12일 국군 제19연대의 왼쪽에 인접한 부대인 미 제1기갑사단 제7기갑연대도 오후 12시 40분에 초월면 지곡리를 공격해 오후 4시 30분에 지곡리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으며, 미 제1기갑사단에 배속된 그리스대대도 오후 12시 55분에 학동리 489고지 서쪽 약 100m 지점까지 도달했다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오후 4시에 늑현리 중동막동 271고지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이 주둔해 있던 정면의 중공군도 무갑산-관산-473고지-앵자봉에 진지를 구축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12일 연대 정찰대의 보고에 의하면, 무갑산-관산 일대에 적어도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고, 앵자봉-양자산 부근에는 목격된 병력만 800~1,000명 정도로 1~2개 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473고지에는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²⁰⁾

예상 외로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국군 제19연대는 13일 오전 6시 제2대대와 제3대대가 563고지 서북쪽 능선(563고지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1.5km)-409고지 북쪽 능선에 이르는 지역까지 전진하고자 공격을 가하였다. 오전 11시 30분에는 국군 제19연대의 오른쪽에 인접한 부대인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광주와 여주의 접경 부근인 578고지(앵자봉 남동쪽 1.2km)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유엔공군은 이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총 6대의 전폭기들을 출격시켜 563고지와 409고지 북방에 대해 폭격을 가하였다. 제19연대는 13일 자정까지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563고지 서북방 700m-409고지의 선에서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미 제19연대도 578고지 점령에 실패하였다.¹²¹⁾

국군 제19연대와 미 제19연대는 14일 오전 9시를 기해 다시 한 번 목표지점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유엔공군의 B-26폭격기가 중공군의 거점인 앵자봉과 양자산 일대를 폭격하는 가운데 국군 제19연대는 제2대대와 제3대대가 489고지 동쪽 능선-409고지 북쪽 능선에 이르는 선상까지 능선을 따라 공격을 개시하고, 오른쪽 인접부대인 미 제19연대 제2대대가 578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군 제19연대와 미 제19연대는 목표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국군 제19연대가 오후 8시에 철수하였으며, 미 제19연대도 오후 1시 50분에 578고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서 392고지 부근으로 철수하였다.¹²²⁾

11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3), 1987, 650-651쪽.

120) 24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Staff Section G-3(1951.2.11), RG407, Box No. 3551.

121) 24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Staff Section G-3(1951.2.13), RG407, Box No. 3551.

122) 24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Staff Section G-3(1951.2.14), RG407, Box No. 3551.

14일 이후부터는 중공군이 오히려 국군 제19연대와 미 제19연대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중공군의 2월 공세'의 일환이었다. 중공군 제38군은 주력군을 투입해 광주 서쪽의 미 제3사단과 미 제1기갑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돌파하고 그 일부를 수원 근교로 진격하게 하였다. 이 뜻밖의 공격은 제8군의 관심을 모아 남한산교두보를 신속히 격파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했다. 그래서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으로 하여금 한강 남안을 확보하도록 하고 미 제25사단을 전용하여 남한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¹²³⁾ 16일 미 제24사단 작전지시 제100호로 국군 제19연대가 제6사단으로 원대복귀되고, 미 제24사단 제5연대가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 제5연대는 국군 제19연대의 진지를 17일 오전 6시부터 인수하기 시작해 별다른 사고 없이 오전 11시에 완료하였다. 지금까지 광주의 동쪽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19연대는 여주읍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광주지역은 1951년 2월 17일부로 서쪽에서는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이, 남쪽에서는 미 제24사단 제5연대가 각각 공격을 담당하게 되었다.

(4) 미 제25사단의 광주 수복

1951년 2월 18일 아침, 대구의 미 제8군사령부에서 전황을 주시하고 있던 리지웨이 장군에게 미 제9군단장 무어 소장으로부터 낭보가 들어왔다. “남한산 교두보를 공격 중인 미 제24사단의 우측 공격연대가 오늘 아침부터 공격을 재개했으나 적으로부터 저항을 전혀 받지 않았다. 적의 참호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장비와 취사도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는 보고였다. 광주지역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2월 17일 미 제24사단 예하의 제5연대와 제19연대가 앵자봉과 578고지를 공격할 때 중공군으로부터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날 미 제5연대 제2대대는 앵자봉을 공격해 점령하고, 오른쪽 인접부대인 제19연대 제1대대는 578고지를 공격해 점령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즉시 이 정보를 전군에 전파하고 각 군단에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적정을 탐지하기 위한 위력수색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광주지역에서는 미 제5연대가 18일 앵자봉에서 진격을 계속해 제2대대의 선두부대가 앵자봉 북방 3.5km 지점의 여주군 강하면 항금리에, 제3대대의 선두부대가 여주군 강하면 동오리에 각각 진출하였다.¹²⁴⁾ 19일 미 제5연대는 오후 3시 45분에 미 제19연대의 진지를 인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미 제5연대는 작전지역을 약간 동쪽으로 이동해 광주지역에서의 전투를 사실상 종결하였다.

123) 일본육전사보급회편·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진지전으로 이전』 8, 명성출판사, 1986, 236~237쪽.

124) 24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Staff Section G-3(1951, 2, 18), RG-407, Box No. 3551, NA.

(5) 전쟁이 광주에 미친 영향

만 3년간 진행된 6·25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광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는 전쟁 초기부터 주요 전투지역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1956년 『경기도지』에 의하면, 1951년 9월 1일 현재 광주군(구천·중대·연주·대왕·낙생·돌마·중부면을 포함)의 인명 피해는 사망 4,163명(남자 2,498명, 여자 1,665명), 납치 69명(남자 42명, 여자 27명), 행방불명 327명(남자 191명, 136명), 부상 300명(남자 180명, 여자 120명) 등 총 4,859명이었다. 피해는 당시 경기도 내에서 고양군 다음으로 큰 것이었다.¹²⁵⁾

광주지역에서 전투상황이 사실상 종결된 1951년 9월 1일 현재 가옥의 경우 전쟁 전 1만 8,820호였던 것이 전소全燒 4,923호, 반소半燒 1,142호로 피해 연건평이 10만 4,574평, 피해액이 89억 3,197만 원圓이었다. 기업체 피해로 도정공장搗精工場의 경우 전소된 공장이 26개소, 반소된 공장이 1개소로 총 피해액이 4,090만 원이었으며, 일반기업체 공장 11개소가 전소되어 11억 34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¹²⁶⁾

한편 전쟁이 광주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피난민촌의 형성이었다. 피난민촌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부는 1951년 6월, 전선이 교착되고 휴전협상이 시작될 즈음 ‘피난민 구호대책’이라는 명목하에 피난민 집단수용촌을 만들기 시작했다. 즉 정부 구호대책의 핵심은 인천에서 강릉지역을 ‘피난민 북상저지선’으로 설정하여 피난민들이 북상하는 것을 막고 구호물자의 보급이 용이한 안전지대를 택해 집단 피난민수용촌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적·물적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좌우익 활동으로 인한 주민 내부의 갈등과 분단의 고착화가 낳은 정치·사회적 영향과 분단의식의 내면화이다. 즉 6·25전쟁이 가져온 민족 내부의 대결·대립구도의 강화,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등 민족적 비극이 생겨났다.

125)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중, 1956, 300쪽.

126)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중, 1956, 301·309·310쪽.

제7절 현대

6·25전쟁 이후 서울의 영역 확장 및 도시화 진전, 생활권 변용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광주의 행정구역 변화가 진행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 광주의 행정구역은 북으로는 한강을 접하고 서로는 당시의 과천 및 안산과 경계를 접하여 현재 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 일대가 모두 광주군 소속일 정도로 광대한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구 및 산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서울의 행정구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광주의 일부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경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한국의 도시성장을 촉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서울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서울은 일본상인과 중국상인 등의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기존의 가내수공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의 형태로 전환됨으로써 공업 및 상업활동이 활발해졌다. 서울은 1942년에 인구 100만도시로 성장하였고, 6·25전쟁이 끝나고 경제재건의 움직임이 일어남으로써 1960년대 들어 전근대적 도시형에서 근대적 도시구조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인구증가는 자연적 증가보다 사회적 증가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고 도시성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3년에 서울 주변 5개 군을 편입함으로써 현재의 행정구역 경계를 확정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의 동남부에 자리하고 있던 광주군의 구천면·중대면·언주면 전지역을 비롯하여 대왕면의 5개 리(수서리·세곡리·율현리·일원리·자곡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¹²⁷⁾

1970년대 들어서서 광주의 영역은 더욱 축소되었다. 광주로부터 분리된 성남의 규모가 나 날이 커졌기 때문이다. 성남은 서울시로부터 이주해오는 사람이 증가하고 공단이 건설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옴에 따라 행정구역의 확장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1973년 7월 1 일부로 광주군 대왕면·낙생면·돌마면과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내에 자리한 6개 리가 성남 시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광주군은 1960년대 초까지 유지해오던 행정구역에서 북서쪽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와 성남시에 넘겨주게 되었다. 즉 광주군은 성남의 모도시격에 해당하지만, 불과 10년 사이에 성남은 시가 된 반면 광주는 그대로 군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1970년대 들어 강남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980년대 들어

127) 구천면과 중대면은 일제강점기에 지명표기가 변경되었다.

서는 서울 한강 이남 동부지역에도 도시화 물결이 유입되고 시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광주군 북쪽에서도 서서히 개발의 물결이 파고 들어와 도시화가 진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접하고 있던 광주군 동부읍과 서부면 전지역, 그리고 중부면 상산곡리 일부가 신장지역을 중심으로 합쳐지면서 1989년에 하남시가 탄생되었다.

2000년대 들어 광주군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도시화 과정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 행정구역은 1989년에 하남시가 신설되면서 서울특별시 경계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인구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군에서도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1년 3월 21일에 시로 승격하였다. 도농복합시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시로 승격한 것이다. 기존의 광주읍은 경안동·송정동·광남동 등으로 분리되었고, 오폐면은 오폐읍으로 승격하였다. 서울의 거대화 및 주변지역과의 도시연담화(conurbation)에 힘입어 서울 주변지역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광주시에도 도시적 주거환경이 조성되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2004년 6월 21일에는 초월면과 실촌면이 각각 초월읍과 실촌읍(현 곤지암읍)으로 승격하였다.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변화를 겪으면서, 면적 축소와 함께 인구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1. 광주대단지 사건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을 최초의 신도시 개발로 인식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건설된 최초의 신도시가 화성이건 성남이건 간에, 성남시의 형성과 발전이 우리나라의 도시발달사에서 큰 획을 그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성남시의 탄생 배경은 가깝게는 ‘광주대단지 사업’ 이고, 멀게는 ‘모란개척사업’에 바탕을 둔 농촌 개척사업이라 할 수 있다.¹²⁸⁾ 성남시가 탄생함으로써 광주군 행정구역 분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6·25전쟁이 끝나고 도시 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서울시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피난민과 도시빈민에 의한 무허가 주택이 곳곳에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무허가 주택과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도심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거주자들을 서울시 외곽의 국공유지에 수용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한 국공유지에서 주거지역은 20%

128)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1, 153쪽.

정도에 지나지 않을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 또한 도심에서 쫓겨난 빈민들은 반강제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분양받은 대지를 전매하고 도심으로 재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도심과밀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빈민촌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누적적·순환적 악순환의 도시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반 들어 서울시가 현재의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서울 주변의 많은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서울의 공업 발달은 지방인구를 흡인하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68년에 400만 명을 넘어 서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계천변·독섬 둔치·철로변·구릉지·하천변 등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서울시 발전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기에, 서울시에서는 1960년대에 시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도시빈민들을 인근 소도시로 소개疏開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빈민의 이전을 위하여 1966년에 무허가 건물 억제 기본정책을 협의하면서,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와 도시빈민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상지역으로 광주군 중부면 일대 약 200만 평의 부지를 극비리에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광주대단지는 1968년부터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잣집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군에 위성도시를 조성하여 서울의 철거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킨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조성된 것이다. 원래의 계획에 의하면 위치 선정은 토지매입이 용이한 집단화된 광역지역, 토지정지작업이 용이한 지역, 위성도시로서 적합한 지역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지로 동부면 신장리와 중부면 성남출장소 구역, 의정부시 부근, 양주군 등지가 거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광주군 중부면 일대 성남출장소 관할구역이 선정되었다.¹²⁹⁾ 그 후 정부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명분으로 서울시 인구 50만 명에 대한 이주지역으로 광주대단지를 건설하기로 발표하였다.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이주단지를 건설한다는 광주대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발표 당시에 집 없는 빈민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었다. 현재 성남시의 기원지에 해당하는 광주군 중부면에는 1969년 당시 2,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중 절대다수가 농민이었으며, 개발 이전의 성남시 역시 소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는 평범한 농촌이었다. 이처럼 한적한 지역에 1969년 5월 들어 최초의 이주 철거민 48세대 154명이 트럭에 실려 들어왔으며, 이후로도 '선 입주 후 건설'의 무모한 이주계획 아래 철거민들이 속속 성남으로 들어왔다.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은 1970년 양택식 서울시장이 부임하면서 확정되었다. 이 계획은 예

129) 한상진, 「서울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의 성격」,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1992, 71쪽.

산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다음 해에 있을 선거를 의식하여 급조된 것이었다. 결국 서울시는 경기도 땅을 헐값에 사서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그 차익으로 광주대단지 건설비용으로 조달하였다. 광주대단지 건설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자 서울에 거주하던 판자촌 주민들이 광주대단지로 대이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광주대단지 일대는 개발붐이 일어 지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수익을 낸 서울시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시설투자로 전용할 수 있었다. 한편 1971년 4월과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은 많은 빈민들을 대단지로 유혹하는 자극제가 되었고, 광주대단지의 인구는 폭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입주민의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입세대들의 과열전매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거 열풍이 사라지고 광주대단지에 대한 개발붐이 가라앉은 1971년 6월 광주대단지 건설실적은 초라한 수준이었으며,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는 또 하나의 빈민촌이 만들어지는 꼴이 되었다. 35만 명으로 책정하였던 이주민은 11만 5,000명 정도가 이주해왔으며, 토지매입과 택지조성의 진척상황 역시 각각 55%와 53% 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광주대단지에서 서울 천호동까지의 도로는 완공되었지만, 광주군 내 도로포장률은 12%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도시형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가동비율은 49%에 지나지 않았으며, 고용 인원은 3%만 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설립 비율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25%라는 낮은 추진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수입의 원천이 되는 토지매입과 택지조성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나머지 생활 인프라의 구축이나 주민의 고용 및 교육대책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¹³⁰⁾

선거가 끝나자 토지 투기업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부동산 매매도 한산해지면서 개발붐이 식기 시작하였다. 상하수도과 전기시설은 고사하고 택지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대단지 예정지에 쓰레기처럼 실려 온 철거민들은 논, 밭, 산비탈에 세워진 천막에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개발지인 광주대단지 지역은 일대 혼란의 도가니였다. 천막 속에 수용된 철거민들의 고통 및 전입자들의 부동산 전매행위 등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원주민들과 전입자 사이의 갈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매 행위를 막겠다는 명분하에 ‘전매 입주자가 전매입한 땅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땅의 불하를 취소한다’는 통고와 함께 불하된 토지를 기한 내 구입하지 않으면 해약은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971년 7월에 주민들은 ‘광주대단지 토지불하가격 시정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 당국과 경기도 당국에 수차 진정을 하며 때로는 산발적인 시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하였다.

130) 한상진, 『서울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의 성격』,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1992, 73쪽.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광주대단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광주대단지 주민 3만 여명은 1971년 8월에 분양지 무상불하 및 대지분양가격 인하, 취득세·재산세·영업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5년간 면제, 영세민들의 취로알선과 구호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과격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강제 철거를 당하였거나



광주대단지의 천막촌

소개된 극빈자들로 정부의 공약 위반과 생활고를 들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가 실패하자, 관용차 4대와 출장소를 불태우고 광주대단지 사무소와 성남파출소를 파괴하고 버스와 트럭 등을 탈취하여 서울시청으로 향하다가 경찰기동대에 의해 해산되었다. 정부의 파행적인 주택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양택식 시장은 주민들에게 전매 입주자의 토지불하 가격은 원 철거이주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평당 최고 2,000원선으로 낮춰주겠으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구호양곡을 방출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면세 혜택을 경기도 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을 빨리 가동시켜 실업자를 구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약속이 체결되어 주민들은 해산하였고, 시위 주동자 21명이 구속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한 후 1971년 9월 13일에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 이후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규모 및 인구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와 광주군 대왕면·돌마면·낙생면 전역을 통합하여 총면적 128.5km²를 관할하는 경기도직할 성남출장소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던 광주대단지의 용지 매수 및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을 경기도가 인수하고 광주대단지의 명칭도 성남단지로 변경하였다. 1971년 10월 30일에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하여, 성남출장소 관할지 전역과 인접한 용인군 수지면의 일부 4.1km²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면서도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2. 광주시의 탄생과 중심성

성남시와 하남시가 각기 분리 독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광주의 중심 시가지가 성남 시가지 및 하남 시가지와 지형적 요인에 의해 단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지역이라 함은 시가지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도시 중심부로의 기능적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 내에 존재하는 자연적 지형지물은 산이나 고개처럼 두 지역을 갈라놓는 분리기능보다는 강이나 하천처럼 두 지역을 연계시키는 결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서울의 중앙부에는 한강이 흐르는데, 이는 강남과 강북을 연계시켜주는 결합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광주의 여건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인위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경우에는 지형적 장애물을 무시하고 광범한 행정구역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남시와 하남시는 모도시격인 광주시와는 산줄기와 고개로 시가지가 단절된 상태이다. 두 도시는 장애물에 가로 막힌 광주보다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서울특별시에 더 인접하여 형성되었고, 현재도 서울 생활권에 포함된다. 광주와 주변 지역 간의 자연적 장애물은 시가지를 분리시키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가지의 분리 독립은 해당 지역의 인구변동 및 생활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 광주의 영역과 인구 변화

광주시의 인구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변동이 매우 큰 패턴을 나타냈는데, 196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급감과 증가현상을 되풀이 하였다. 1961년의 광주 인구는 13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해당하였다. 1963년에 광주군의 일부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됨에 따라 1963년에는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면적은 대왕면을 비롯한 4개 면이 서울로 편입됨으로써 이전의 740.1km²에서 632.3km²로 축소되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도시화 수준이 그리 높았던 시기가 아니지만, 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서울과 충북 및 경상지역을 연결하는 3번 국도의 관통 등으로 인하여 서울의 위성도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서울 거주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꾸준한 인구증가를 경험하였다. 광주시의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소폭의 증가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1960년대만 해도 서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은 아니었다. 반면 당시에는 현재의 하

남시에 해당하는 광주군 동부면이 서울 교외의 주거입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9년 들어 광주 인구는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1970년 들어 광주군 중부면 수진리를 중심으로 서울로부터 이주해온 주민들의 정착이 본격화하면서 광주 인구는 순식간에 14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1971년에 광주군 소속이었던 성남출장소가 독립적인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로 격상됨에 따라 인구는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동시에 면적도 이전의 632.3km²에서 503.7km²로 축소되었다.

성남출장소가 분리된 후에도 광주군의 인구증가는 지속되었지만 모든 지역에서 인구증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전됨으로써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주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정점에 달한 시기이다. 이는 서울 주변의 농촌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농촌적 성격이 강한 도척면·남종면·퇴촌면 등지에서는 인구가 감소한 반면 서울과 인접한 동부면·서부면, 그리고 광주읍 등지에서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광주군 동부면이 1979년에 읍으로 승격하였고 인구증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1989년에 동부읍과 서부면을 통합하여 하남시가 신설되었다. 광주는 다시 한 번 인구가 감소하였다. 하남시의 분리는 인구 규모를 17만 2,000명에서 7만 7,000명으로 이전 시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하남시가 광주군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감으로써, 광주군의 면적은 503.7km²에서 현재의 431.0km²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광주읍의 성장이 매우 두드러져, 1990년에 3만 2,398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6만 264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로 승격한 2001년에 3개의 행정동(경안동·송정동·광남동)으로 분할하였다. 광주의 중심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3개 동은 매년 인구증가 추세를 이어가 2007년 말에는 10만 명을 상회하였다. 기존의 광주읍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의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광주에서는 남부에 위치하는 오폐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광주 중심 시가지는 물론 인접하고 있는 성남의 분당 신시가지와도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43번·45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교통여건도 매우 양호한 조건을 지닌다. 특히 분당 신시가지에 본격적인 입주가 마무리된 1996년부터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시가지 개발사업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신규의 주택단지를 비롯하여 시가지가 건설됨에 따라 오폐면의 도시화가 진전되었다. 오폐면은 2001년에 오폐읍으로 승격하였으며, 2006년에 인구 5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외에도 3번 국도를 따라 광주의 중심시가지로 연결되는 초월읍과 곤지암읍도 광주시의 국지적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생활권의 변화

성남시와 하남시는 광주군 소속이었다가 완전히 분리 독립한 도시이다. 현재 광주시·성남시·하남시는 독자적인 행정단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침상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4개 도시 간의 상호작용 패턴은 각 도시의 기능 및 성격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광주로부터 분리된 성남과 하남이 광주 또는 서울과 어떠한 상호작용패턴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역 분리와 지역연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인 1일 인구유동을 통해 광주와 주변 지역 간의 생활권이 변용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보자.

1일 인구유동이란 주거지 이동의 개념이 아닌 정형화되고 규칙적인 이동으로, 지역구조의 변모와 도시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통근이나 통학을 위한 이동은 지역 간의 지배-종속관계 파악에 매우 유익한 지표이다. 지역 간에 발생하는 통행량은 한 지역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규모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1일 유동인구는 1990년의 23만여 명에서 2005년에는 49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유동인구 역시 1990년의 2만 4,000여 명에서 2005년에는 10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하남시 역시 1990년에는 3만 9,000여 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6만 2,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성남시에서는 분당신도시의 입주가 거의 완료된 1995년부터 통근통학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광주는 2000년 이후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하남은 시로 승격하고 창우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후인 1995년 들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통근통학량이 모든 도시에서 증가하였음에도 3개 도시 간의 상호작용에는 그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동일 도시지역 내에서의 통근통학량을 제외한다면, 3개 도시 모두 서울로의 이동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의 광주시 경계안에서 계획적인 주거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계획적인 신시가지가 조성되지 않았기에 외부 지역으로부터 대규모의 인구전입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곧 광주시 거주자들의 통근통학 패턴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광주시 내부로 집결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였다. 2000년까지만 해도 통근통학 통행의 대부분이 광주 내부에서 이루어졌지만 2005년에는 서울이나 성남으로 유출되는 통행량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광주에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성남이나 서울 등지로부터 유입한 인구의 대부분이 직장은 그대로 두고 주거지만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는 주거지 교내화 과정을 거침에 따라, 광주가 성남이나 서울에 종속되는 정도가 강화된 것이다.